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0호 【루계 제24808호】 주체104(2015)년 1월 30일 (금요일)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

김정은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다그치며 축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당, 국가경제기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주체104(2015)년 1월 28일

오늘 우리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은 인민생활을 빨리 높이는것입니다.

우리 인민들은 지금까지 적들과 맞서있는 어려운 조건에서 긴장한 투쟁을 벌리면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느라 언제한번 풍족한 생활을 마음껏 누려보지 못하였습니다. 생활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위대한 수령님들께 순결한 도덕의리를 다해가고있는 이처럼 좋은 우리 인민들에게 넉넉한 생활을 마련해주지 못하는것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나는 비록 작은것이라도 인민들이 애로를 느끼는 문제를 풀어주고 많은것은 아니라도 인민들에게 무엇이 차례지게 하였다는 보고를 받을 때가 제일 기쁩니다. 우리는 당에 모든것을 의탁하고 당과 함께 온갖 시련과 난관을 헤쳐온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세상에 부럼없는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인민생활을 높이자면 농사를 잘하는것과 함께 축산업과 수산업을 발전시켜 먹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나는 올해 신년사에서 농산과 축산, 수산을 3대축으로 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습니다. 농산과 축산, 수산을 3대축으로 틀어쥐고 적극 발전시켜나가면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세포등판을 개간하여 대규모축산기지로 전변시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였습니다.

세포등판을 개간하여 축산기지로 꾸리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간곡한 유훈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벌써 승리한 조국의 래일을 내다보시고 세포등판을 개간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전후에도 사회주의건설을 령도하시면서 세포등판에서 풀판을 리용하여 집짐승을 많이 길러 농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으며 축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농장도 내오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세포등판을 개간하여 축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념원을 현실로 꽃피우려는 당의 구상과 작전에 따라 지금 세포지구에서는 현대적인 대규모축산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수만정보의 풀판을 조성하고 대규모축산기지를 건설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자들은 경험이 없고 부족한것이 많지만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세포전역에서 사람들을 경탄시키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습니다. 당의 부름을 받들고 세포지구에 달려나간 인민군군인들과 돌격대원들은 자연의 도전을 맞받아나가면서 짧은 기간에 수만정보의 풀판을 새로 조성하였으며 지난해 풀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습니다. 도로공사와 살림집건설, 집짐승우리와 공공건물건설을 비롯한 대상건설에서도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에서 성과가 크지만 앞으로 해야 할 과제가 더 방대합니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인민군군인들과 돌격대원들의 앙양된 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계획한 투쟁목표를 빨리 끝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세포지구를 대규모축산기지로 꾸리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토지개량과 풀판조성을 잘하는것입니다.

세포지구의 땅은 전반적으로 부식함량이 적고 산성화되여있어 거기에 그냥 풀씨를 뿌려서는 먹이풀을 많이 생산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토지개량을 잘하여야 합니다. 토지개량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세포지구 축산업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세포등판의 땅을 척박한채로 내버려두어서는 안됩니다. 세포등판을 개간하는 과정에 조국해방전쟁시기의 포탄과 총탄들이 많이 발견되였는데 그 한치한치의 땅이 선렬들이 피를 흘리며 목숨바쳐 지켜낸 조국의 한부분이라는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의 뜻이 어려있고 선렬들의 붉은 피가 스며있는 귀중한 조국땅을 한치도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인민들의 행복이 꽃펴나는 풍요한 대지로 전변시켜야 합니다.

부지런한 농사군에게는 나쁜 땅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땀을 바치고 진심을 묻으면서 애써 걸구면 어떤 땅이나 다 옥토로 만들수 있습니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자들은 돌우에도 꽃을 피우는 정성과 한줌의 흙, 한포기의 풀도 가슴에 품어안고 후더운 심장으로 가꾸어가는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바쳐 세포등판을 기름지워야 합니다.

세포지구의 토양분석을 구체적으로 한데 기초하여 소석회와 탄재도 내고 흙보산비료같은 유기질비료를 많이 쳐서 토양의 영양물질함량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합니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이 끝난 다음에도 풀판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계속 내밀어야 합니다. 세포등판의 땅은 물이 잘 스며들지 않아 비가 많이 내리면 피해를 입게 되므로 물이 인차 빠지게 하여야 합니다.

세포지구는 사철 바람이 세게 부는 조건에서 방풍림을 조성하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하여야 합니다.

세포등판에 좋은 품종의 풀씨를 심고 풀판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풀판에는 오리새와 자주꽃자리풀, 토끼풀을 비롯한 좋은 품종의 먹이풀을 심어야 합니다. 세포군과 평강군, 이천군에서 풀판에 심을 종자를 자체로 생산보장하는것과 함께 전국적으로 좋은 풀씨를 채집하여 보내주도록 하여야 합니다.

세포지구는 해발높이가 각이하고 지형이 복잡하며 기후의 차이가 심하므로 먹이풀과 먹이작물배치를 적지적작의 원칙에서 잘하고 지대적특성에 맞는 비배관리방법을 완성하여 그 생산량을 늘여나가야 합니다.

먹이풀판을 논밭을 가꾸듯이 비료와 농약을 치고 관수를 하면서 잘 가꾸어야 합니다. 내가 해당 일군들에게 《풀판조성과 목장들》이라는 도서를 보내주었는데 다른 나라들의 좋은 풀판조성경험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살림집과 집짐승우리, 공공건물건설을 비롯한 건축공사와 도로건설을 다그쳐 질적으로 끝내야 합니다. 세포지구에 축산학연구소와 축산물가공기지를 반드시 건설하여야 합니다. 세포지구에 일떠세우는 모든 대상들을 용도와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쓸모가 있으면서도 자연풍치와 잘 어울리고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건설하여야 합니다. 건축공사에 대한 시공지도와 감독사업을 짜고들어 건설물들의 질을 21세기 본보기축산기지의 건축물답게 최상의 수준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축산기지건설에 필요한 연유와 자재, 로력과 설비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내각과 해당 단위들에서 세멘트와 철강재를 비롯한 건설자재와 설비들을 계획대로 보장하며 물동수송조직을 잘하여 축산기지건설을 일정대로 내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세포지구 축산기지를 운영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짜고들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세포지구에서 축산기지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지만 집짐승확보를 비롯하여 기지운영과 생산활성화를 위한 준비사업은 잘 진척되지 않고있습니다. 세포지구에 좋은 품종의 집짐승들을 보내주고 축산기술자들과 사양공들을 예견성있게 꾸려주어 축산기지건설이 끝나면 그것이 인차 은을 낼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조선인민군 제621호육종장과 운곡지구종합목장에서 파울염소를 비롯한 좋은 품종의 풀먹는 집짐승을 많이 육종하여 세포지구 축산기지에 보내주도록 하여야 합니다. 세포지구에서 기를 집짐승들을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기도 하여야 합니다.

세포등판을 개간하여 축산기지를 건설하는 사업은 전당적, 전국가적으로 내밀어야 할 사업입니다. 나는 인민군대에서도 세포등판을 개간하는 사업에 책임일군들부터 앞장서라고 하였습니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에 당중앙위원회와 내각과 위원회, 성, 중앙기관들이 다 관심을 돌리고 힘을 넣어야 합니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다그치는것과 함께 나라의 전반적축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당에서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에 힘을 넣는것은 이것을 계기로 나라의 전반적인 축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자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당의 령도밑에 이미 꾸려진 현대적인 축산기지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그 어려웠던 시기에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하여 이르는 곳마다에 현대적인 닭공장과 돼지공장, 소목장을 비롯한 축산기지들을 일떠세우도록 하시였습니다.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일떠선 축산기지들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이 축산기지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면 많은 고기와 알을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해줄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군들이 축산기지를 꾸려놓는것으로 그치고 정상운영대책을 바로세우지 않아 주저앉은 단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미 꾸려진 축산기지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들이 장군님의 사랑과 은덕을 실생활에서 느끼게 하는것은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인 우리 일군들의 본분이며 마땅한 도덕의리입니다. 이미 꾸려놓은 축산기지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는것은 단순한 경제실무적사업이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사업입니다. 장군님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축산기지들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목표와 과학적인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세우고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고기와 알생산을 빨리 늘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내가 전번에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현지지도하면서 과수농장들사이에 생산경쟁을 벌리라고 하였는데 축산부문의 령도업적단위들에서도 사회주의경쟁의 열풍을 일으켜 축산물생산에서 비약을 이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면으로 계속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다그치며 축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1면에서 계속

축산물생산을 늘이기 위한 사업을 전군중적으로 힘있게 내밀어야 하겠습니다.

협동농장들의 공동축산과 농촌세대들의 개인축산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나라의 축산물생산에서 협동농장들의 공동축산과 농촌세대들의 개인축산이 차지하는 몫이 적지 않습니다. 협동농장들의 공동축산과 농촌세대들의 개인축산을 발전시키는것은 국가적인 큰 투자없이 축산물생산을 늘일수 있는 중요한 방도로 됩니다.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축산작업반과 비육분조들을 잘 꾸리고 실리있게 운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협동농장 축산작업반과 비육분조들에 새끼생산계획과 고기생산계획을 주고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촌세대들의 개인축산을 장려하여야 합니다. 집집마다 집짐승들이 욱실거리는것도 사회주의농촌의 풍치입니다. 농촌세대들에서 돼지와 염소, 토끼, 닭을 비롯한 집짐승들을 많이 길러 수입을 늘이며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꾸려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축산은 어느 단위에서나 다 하여야 합니다. 지금 성진제강련합기업소와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를 비롯하여 축산을 잘하여 종업원들에 대한 후방사업에서 소문을 내고있는 단위들이 적지 않습니다. 모든 기관, 기업소들에서는 후방사업이자 곧 정치사업이며 사회주의수호전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실정에 맞게 축산을 발전시켜 종업원들의 투쟁열의를 높여주고 그들을 혁명과업수행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여야 합니다.

축산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집짐승종자문제와 먹이문제를 풀고 사양관리를 개선하며 수의방역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좋은 집짐승종자확보와 충분한 먹이보장, 과학적인 사양관리와 철저한 수의방역대책은 축산업발전의 4대고리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종자문제를 해결하는것은 축산업발전의 선결조건입니다.

농사와 마찬가지로 축산에서도 종자가 기본입니다. 좋은 품종의 집짐승을 길러야 먹이를 적게 들이면서 고기와 알을 많이 생산할수 있습니다. 축산을 전군중적으로 전개하자고 하여도 종자문제부터 풀어야 합니다.

집짐승육종사업을 강화하여 좋은 집짐승품종을 많이 얻어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먹이를 적게 먹으면서도 빨리 자라며 번식률이 높고 병에 잘 걸리지 않는 품종의 집짐승을 육종하는데 힘을 넣어야 합니다. 특히 알곡먹이를 적게 소비하면서 짧은 기간에 덕을 볼수 있는 집짐승종자를 얻어내는것이 중요합니다. 육종사업에서 주체를 세우고 세포공학과 유전자공학을 비롯한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활용하여 좋은 품종의 집짐승들을 많이 육종해내야 합니다. 집짐승육종사업은 중앙의 연구소에서만 하지 말고 지방의 축산기지들에서도 하고 개별적으로도 하여 자체의 실정에 맞는 집짐승종자를 얻어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한편 다른 나라들과의 과학기술교류를 활발히 벌려 좋은 품종의 집짐승들을 들여다 시험단계를 거쳐 기르도록 하여야 합니다.

집짐승종자와 그 리용에 대한 국가검정사업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집짐승종자는 우리 나라에서 연구육종한것이든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것이든 다 국가검정을 받아 등록하고 리용하는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원종장들과 종축장들을 잘 꾸리고 집짐승종자생산공급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힘을 넣어 원종장들과 종축장들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이 단위들에 필요한 먹이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원종과 종축생산방법을 개선하고 생산한 원종과 종축공급을 잘 짜고들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원종보존체계를 세워 좋은 품종의 집짐승들이 퇴화되거나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 토종돼지, 토종닭을 비롯하여 고기맛이 좋고 특이한 토종집짐승들을 적극 보호증식시켜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유명한 조선소와 풍산개도 원종을 보존하고 널리 퍼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먹이문제를 해결하는것은 축산업발전의 결정적담보입니다.

축산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종자 못지 않게 먹이보장문제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짐승품종을 얻어내도 먹이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축산업을 발전시킬수 없습니다. 지난 시기 일정한 기간 활성화되던 축산업이 주저앉게 된것도 먹이문제를 해결하지 못한것과 관련되여있습니다.

집짐승먹이문제를 풀기 위한 방도는 풀과 고기를 바꿀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데 있습니다. 풀과 고기를 바꾸라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미 1950년대에 내놓으신 명제입니다. 수령님의 이 명제에는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에 맞게 집짐승먹이문제를 풀수 있는 과학적인 방도가 명시되여있으며 우리 나라 축산업발전의 기본방향이 뚜렷이 밝혀져있습니다.

우리는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알곡먹이대신 풀을 리용하여 축산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러자면 이르는 곳마다에 풀판을 많이 조성하여야 합니다. 해당 단위의 지대적특성에 맞게 인공풀판과 자연풀판을 잘 조성해놓고 영양가높은 먹이풀들을 재배하며 그 정보당생산량을 늘여야 합니다. 경지면적이 제한되여있고 산이 많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림농복합경영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집짐승먹이문제도 풀고 알곡생산도 늘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축산단위들에서는 새땅을 찾아 거기에 영양가높은 먹이풀을 심고 호박굴도 만들며 산을 낀 곳에서는 칡산을 조성하고 강과 호수를 낀 곳에서는 물에서 자라는 먹이풀을 재배하여 먹이문제를 자체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축산에 필요한 알곡먹이는 농사를 잘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장군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축산과 농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고기생산량과 알곡수확고를 동시에 높일수 있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당의 방침대로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널리 받아들여 알곡과 축산물생산을 다같이 늘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단백질먹이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축산물은 그자체가 단백질로 이루어져있기때문에 단백질먹이를 보장하지 않고서는 고기와 알을 제대로 생산할수 없습니다. 콩농사를 많이 하여 콩깨묵생산을 늘이며 단백곤충을 비롯한 여러가지 단백질먹이원천을 적극 탐구리용하여야 합니다.

먹이첨가제문제도 해결하여야 합니다. 지금 적지 않은 축산단위들에서 먹이첨가제를 다른 나라에서 사다 리용하고있는데 그렇게 하여서는 축산기지들을 바로 운영할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에 먹이첨가제를 생산하는 공장들이 있지만 그 공장들에서도 원료를 사다가 첨가제를 생산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자체의 원료에 의거한 먹이첨가제생산방법을 연구완성하여 축산기지운영에 필요한 먹이첨가제를 생산보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집짐승먹이생산을 현대적과학기술에 기초하여 공업화하여야 합니다. 배합먹이공장들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원료를 충분히 대주어 여러가지 영양물질이 배합되여있는 완전가먹이를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먹이가공기계들을 만들어 축산단위들에 보내주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집짐승사양관리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축산도 과학입니다. 농사를 잘하자면 과학농사를 하여야 하는것처럼 축산도 과학축산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축산물생산을 늘이고 경제적실리를 보장할수 있습니다.

사양관리는 집짐승들의 생리적특성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 축산부문에서는 집짐승들의 생산목적과 성장단계별에 따르는 먹이단위를 옳게 정하고 생육에 필요한 조건들을 원만히 보장해주며 집짐승들의 활동습성에 맞게 사양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집짐승들의 새끼낳이시기와 도살시기를 바로 정하여야 합니다.

집짐승기르기를 지대적특성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 농사에서 적지적작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것처럼 집짐승도 알맞는 지대에서 알맞는 품종을 길러야 합니다. 해당 지역의 자연지리적특성과 여러가지 조건을 구체적으로 타산하고 거기에 맞는 집짐승을 기르도록 하여야 합니다.

과학적인 사양관리방법을 확립하는데서 축산과학연구기관들의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축산과학연구기관들에서는 축산물생산의 모든 공정을 과학화하며 합리적인 사양관리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특히 알곡먹이를 쓰지 않거나 적게 쓰면서 증체률을 높이기 위한 연구사업과 장마철과 겨울철 집짐승사양관리방법을 완성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힘을 넣어야 합니다. 축산과학연구기지들을 잘 꾸리고 과학자, 기술자들의 연구사업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며 과학기술지도체계를 정연하게 세워야 합니다.

집짐승사양관리를 과학적으로 하자면 축산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전문과학지식과 기술기능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중앙의 과학연구기관과 축산단위들을 콤퓨터망으로 련결시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축산업발전의 세계적추세를 제때에 알고 과학적인 사양관리방법들을 받아들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축산단위들사이의 경험교환과 방식상학같은것도 자주 조직하여 앞선 사양관리방법과 좋은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수의방역사업은 축산업에서 생명과 같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는 축산부문에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방역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수의방역사업을 잘하여야 집짐승의 페사률을 낮추고 축산물생산을 안전하게 할수 있습니다. 축산에서는 방역이자 곧 생산입니다.

축산을 하는 모든 단위들에서 방역시설들을 잘 갖추어놓고 집짐승들에 대한 검진과 우리소독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축산기지들에서 외부인원들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사양관리를 위생문화적으로 하여 전염병과 기생충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이 발생할수 있는 근원을 없애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여러가지 집짐승질병들이 돌아 축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있는데 다른 나라들로부터 병이 들어오지 못하게 국경방역사업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특히 구제역과 조류독감과 같은 전염성이 강한 질병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일단 집짐승전염병이 발생하거나 그러한 위험이 조성되면 해당 지역을 제때에 차단하고 빈틈없는 방역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수의방역과 관련한 문제에서는 사소한것도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의방역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수의방역기관들을 잘 꾸리고 현대적인 진단설비들과 검사기구, 시약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집짐승질병치료에 필요한 소독약, 치료약, 치료기구들을 생산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축산단위들에서 약초를 가지고 수의약품들을 자체로 만들어 리용하기 위한 사업도 잘하여야 합니다.

축산업을 활성화하여 인민생활을 높일데 대한 당정책을 관철하는데서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축산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튼튼히 틀어쥐고 일관성있게 관철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축산업을 발전시켜 인민들에게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주려는 우리 당의 구상과 의도를 명심하고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게 축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세운데 기초하여 실천에서 생활력이 나타날 때까지 완강하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지난 시기처럼 애로와 난관이 있다고 하여 주저하거나 동요하면서 축산을 소홀히 하고 도중에 줴버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각급 당조직들, 특히 축산부문 당조직들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축산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속에 우리 장군님께서 한평생 마음속에 안고계신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깊이 새겨주어 그들이 당의 축산정책관철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축산을 근기있게 내밀어 그 덕을 보고있는 단위들과 근로자들의 경험을 널리 소개선전하고 일반화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에 사회주의승리가 비낀다

우리는 지금 평양육아원의 복도를 걷고있다.

정녕 돌아보면 볼수록 아이들을 위한 이렇듯 훌륭한 행복의 요람이 이 세상 그 어디에 또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 흥분을 금할수가 없다.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교양, 성장발육, 지능계발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손색없이 꾸려진 보육실들과 잠방, 놀이장들, 해빛쪼이기를 하고 맑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수 있게 아담하게 조성해놓은 내정, 장난이 세찬 아이들이 오르내리면서 다치지 않도록 설치해놓은 계단란간, 내과, 외과, 구강과 등을 갖춘 치료병동과 리발실도 흠잡을데 없는데 아이들의 동심에 맞게 생활실들과 복도들에 부각하여 붙여놓은 그림장식들은 또 얼마나 재미있고 이채로운것인가.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가 다 한결같이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부러워한다.

자식들의 행복에서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것이 부모들일진대 어찌 이런 희한한 궁전에서 자기의 귀여운 자식들을 키우고싶은 생각이 없으랴.

포근한 잠방으로부터 시작하여 놀이장의 자그마한 놀이감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것이 최상의 수준에서 마련된 이 사랑의 궁전에서 바로 서방세계가 《국가와 사회의 가장 어두운 리면을 보여주는 존재》라고 하는 부모잃은 아이들이 친부모의 정에는 대비할수도 없는 가장 자애로운 어머니 우리 당의 사랑을 가슴한가득 받아안으며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행복의 무아경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아이들, 그 철부지들은 아직 그 어떤 위대한 사랑이 자기들을 보살피고있는지 모른다.

어찌하여 우리 당은 원아들을 끔찍이 보살피며 그들에게 이토록 아낌없는 사랑과 정을 쏟고있는것인가.

다음의 사실을 알면 세상의 그 누구나 그 물음에 대한 명명백백한 대답을 찾을수 있을것이다.

올해 1월 1일 새해의 첫 현지지도로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찾으시고 새해를 맞이하는 원아들을 따뜻이 축복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부모의 사랑을 제일 그리워하는 원아들이 밝게 웃으며 즐겁게 양력설을 쇠는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온 세상이 밝아지도록 환하게 웃으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오늘 원아들의 밝은 웃음을 보니 쌓였던 피로가 다 풀렸습니다. 우리가 일은 힘들게 하였지만 저렇게 밝게 웃는 아이들을 보게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를 악물고 혁명을 하는것은 바로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적들이 아이들의 웃음마저 빼앗으려고 미쳐날뛰고있는데 우리가 그 웃음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앞으로 평양육아원과 애육원 원아들을 비롯한 우리의 모든 아이들은 자기들의 웃음을 지켜준 당과 조국을 영원히 기억할것입니다.

당에서 훌륭히 꾸려준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을 잘 관리운영하여 여기에서부터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온 나라에 울려퍼지게 하여야 합니다. …

그렇다.

내 조국의 심심산골에서부터 로동당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시려는것처럼 마음속상처를 입은 원아들의 얼굴에서부터 행복의 웃음, 기쁨의 웃음꽃이 활짝 피여나게 하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철의 의지이다.

이렇듯 숭고한 뜻을 안으신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기에 올해 정초 가셔야 할 곳도 많으시였건만 신년사를 마치신 그길로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찾으시고 우리가 혁명을 하는 이 땅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 힘차게 울려퍼질것이라는 력사의 선언을 하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은 바로 나라의 꽃봉오리들인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한 사업에서부터 높이 발휘되여야 합니다.》

혁명은 본질에 있어서 후대들을 위한 숭고한 사업이라고 할수 있다.

이것은 지나온 우리 혁명사의 총화이기도 하다.

지난 세기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힘차게 벌린 두차례의 혁명전쟁과 두 단계의 사회혁명도 조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벌린 장엄한 투쟁이였고 또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험난한 길을 헤치며 열어놓은 선군승리의 천만리길도 바로 후대들에게 보다 휘황찬란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넘겨주기 위해 걸어온 력사적인 진군길이였다.

만약 혁명의 전세대들에게 저 하나의 안락만을 바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처럼 겹겹이 막아서는 시련과 난관의 언덕들을 과감히 헤치며 오늘의 승리를 위한 굳건한 토대를 마련할수 있었겠는가.

후대들에 대한 사랑을 곧 조국에 대한 사랑으로,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으로 여기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뜻이 혁명의 전세대들의 심장마다에 세차게 맥박쳤기에 그들은 피로써 조국을 사수하였고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낼수 있었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구호 《세상에 부럼없어라!》가 제일 좋다고, 이 구호를 보기만 하여도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상이 가슴뜨겁게 어려온다고 말씀하시였다.

바로 이 구호에는 이 땅의 아이들에게 주실수 있는 온갖 사랑을 다 안겨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후대관이 집대성되여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그처럼 사랑하시고 애지중지하신 조선의 꽃봉오리들중에는 얼굴에 자그마한 그늘이라도 진 아이가 한명이라도 있어서는 안된다.

이것이 구호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대하시는 우리 원수님의 뜨거운 심중이리라. 부모잃은 원아 한명한명도 다 대원수님들께서 맡기고 가신 내 조국의 미래들이라는 무변광대한 사랑이 그이의 심장에 끓고있기에 부모가 있는 어린이들보다도 우리 원아들을 더 먼저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보다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는 우리 원수님이시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주체103(2014)년 2월 3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시의 육아원과 애육원을 찾으시였던 력사의 그날이,

그날 육아원과 애육원을 돌아보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부모없는 아이들은 누구보다 정을 그리워한다고, 우리가 부모들을 대신하여 그들을 밝고 바르게 잘 키우자고, 부모없는 설음을 모르고 튼튼하게 자라 나라의 역군이 되게 하자고 뜨겁게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이 즐겨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우리 나라의 그 어디서나 더 높이 울리게 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부모없는 아이들도 우리 혁명의 계승자, 미래의 역군들이라고, 전국의 모든 육아원, 애육원들을 혁명가유자녀들을 키우는 혁명학원수준으로 꾸리자는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당에서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평양시의 육아원, 애육원을 새로 마련해주겠다고, 평양시의 육아원, 애육원을 아이들의 보육과 지능계발, 체력단련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된 세상에서 제일 좋은 현대적인 시설로 꾸려주겠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은 얼마나 가슴뜨거운것이였던가.

이렇게 펼쳐진 평양육아원, 애육원의 새 력사였고 이렇게 더욱더 커지게 된 우리 아이들의 행복이였다.

우리가 혁명을 하는것도 아이들을 위해서이라고,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볼 때마다 혁명을 끝까지 해야 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진다고 하시며 뜨거운 후대사랑으로 심장을 끓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그이께서는 혁명하는 멋을 바로 아이들의 웃음속에서 찾으신다.

아이들이 명랑하게 구김살없이 자란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쁘시면 정말 이런 멋에, 이렇게 순간에 속이 한번씩 뭉클해오는 행복에 도취되여보려고 힘들어도 웃으며 투쟁속에 사는것 같다고,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바탕으로 힘과 용기를 모아 백배하여 일들을 더 잘해나가자고 마음속진정도 터놓으시는것이랴.

지난해 5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성산종합병원을 찾으시였던 소식은 오늘도 이 나라 천만군민의 가슴을 세찬 격정으로 채워준다.

누구도 알수 없었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였다.

아름다운 색동옷과 코스모스머리빈침 그리고 산꿀과 과일, 당과류, 물고기를 비롯한 식료품들이 원아들에게 한가득 안겨질 때 그 사랑이 하도 커서 감격의 눈물을 쏟았던 우리 군대와 인민이였다.

그런데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육아원과 애육원의 아이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시며 허약한 아이들이 있을세라 마음쓰신줄이야 어이 알았으랴.

인민군군인들을 위해 일떠세운 병원에 원아들을 입원시켜 보양시킬데 대한 과업을 주시고 몸소 그 정형을 알아보시려 병원을 찾으시여서는 몸무게관찰표도 주의깊게 보아주시였다는 소식을 눈물속에 전해듣고서야 이 나라 천만군민은 후대들을 위하시는 그이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열렬한것인가를 더욱 심장깊이 절감하였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지녀보지 못한 그렇듯 숭고한 후대사랑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기에 흙먼지날리는 험하디험한 건설장을 몸소 찾으시고 평양육아원, 애육원건설과 관련한 가르치심을 주신것이고 손수 수첩에 계산까지 해가시며 원아들에게 하루에 먹일 물고기량까지 타산해보신것 아니랴.

과연 그 어느 나라 령도자가 부모잃은 원아들에게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물고기를 보장할수 있도록 수산사업소를 조직하도록 하고 원아들을 위해 인민군대가 곶감을 마련하여 보장하도록 하는 그런 사랑의 명령을 내릴수 있으랴.

우리 원수님 아니면 누가 애육원 원아들의 밥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입이 밭은 아이의 식성을 대번에 알아보고 그에 맞는 료리방법까지 세심히 가르쳐줄수 있으며 그이 아니면 누가 아버지, 어머니란 말을 불러보지 못한 원아의 가슴을 따뜻이 덥혀주며 어디 한번 아해보라 하며 입안까지 세심히 살필수 있으랴.

정녕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것이 우리 원아들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하와도 같은 사랑이다.

사랑의 그 품에 안기고 그 손길 잡으면 친부모의 따스한 정을 느끼는 우리 원아들이기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스스럼없이 천진하게 그이품에 안겨드는것이다.

친부모의 사랑에도 비길수 없는 뜨거운 정을 부어주시는 우리 원수님의 그 사랑에 의하여 원아들은 만사람의 부러움속에 사는 행복동이들로 되였다.

진정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신 이 땅의 꽃봉오리들가운데는 단 한명도 얼굴에 그늘진 아이가 있어서는 안된다는것, 천이면 천, 만이면 만 이 땅의 아이들모두가 한모습으로 밝게 웃을 때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모습이 더 밝고 창창해진다는 바로 이것이 가장 숭고하고도 열렬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의 세계이다.

세상을 둘러보면 오늘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사회적관심의 무표정속에서 불행하게 시들어가고있는가. 남녘의 바다에 수장된 수백명 아이들의 혼이 억울함을 말하고있을 때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수많은 아이들이 불행의 나락에서 헤매이고 학대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그러나 우리 조국에서는 어머니당의 숭고한 후대사랑에 떠받들리여 온 나라에 아이들의 기쁨넘친 웃음소리, 행복의 노래소리가 끝없이 울려퍼지고있으니 바로 여기에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약동하는 기상이 있다.

적들은 우리의 핵과 미싸일을 무서워하고 새 세기 산업혁명의 포성도 무서워하지만 그보다도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명랑하게 울려퍼지는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더 두려워하고있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터치는 행복넘친 웃음소리에 조선의 영원한 승리가 비껴있기때문이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과 온갖 적대세력들은 이 땅에서 우리 조국의 미래를 걷어가려고 악랄하고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다. 적들은 우리 아이들의 얼굴에 설음과 절망의 표정이 비끼길 바라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부모잃은 아이일수록 더 따뜻이 보살피고 돌보아주시는 자애로운 아버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신다.

그이의 다심한 그 손길, 뜨거운 그 사랑속에 이 땅에는 아이들을 위한 재부가 끝없이 늘어만 나고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날로 높아만 간다.

부모잃은 설음을 느끼기에 앞서 행복만을 알며 자라는 여기 육아원, 애육원의 원아들이 이제 커서 어른이 되면 생각할것이다.

어찌하여 자기들이 부모가 있는 아이들보다 더 행복하였는가를.

그들은 또 알게 될것이다.

어찌하여 보육원선생님들이 자기들을 위해 밤을 밝히며 온갖 정성을 쏟아부었으며 당과 국가의 일군들이 자기들의 생활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돌리였는가를.

시간이 흐를수록 더 높이 울려퍼지는 그들의 밝고 명랑한 웃음소리는 우리 조국의 래일을 다 말하여주고있다. 이 땅에 뿌리내린 우리 식 사회주의는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뿌릴것이다.

이 땅의 복받은 꽃봉오리들아, 더 밝게 웃어라, 곱게 피여라.

온 나라 천만군민은 너희들의 명랑하고 밝은 웃음에서 최후승리의 그날을 본다.

본사기자 정순학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잠비아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루사카

잠비아공화국 대통령

에드가르 룬구각하

나는 당신이 잠비아공화국 대통령으로 선거된것과 관련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나라의 안정과 번영,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하면서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4(2015)년 1월 26일 평 양

제19차 김정일화축전준비사업 적극 추진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을 맞으며 제19차 김정일화축전준비사업이 활기있게 추진되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선군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우리 인민들과 해외동포들,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커다란 관심속에 해마다 성대히 개막되는 축전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위인칭송의 꽃축전이다.

조선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의 일군들은 뜻깊은 올해에 진행되는 축전이 보다 의의있는 축전으로 되도록 하기 위하여 분과들의 일정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고 축전준비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약동하는 선군조선의 밝은 미래를 축복하여 만발한 김정일화》라는 이번 축전의 주제에 맞게 사상적대가 뚜렷하고 조형예술성이 훌륭히 보장된 축전장총형성도안과 부문형성도안들, 선전화가 완성되였다.

지금 위원회의 일군들은 영생축원의 꽃바다가 펼쳐지게 될 축전장을 이채롭게 장식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여러 기관들에 나가 축전준비사업을 도와주고있다.

축전준비로 들끓는 무력기관들과 위원회, 성, 중앙기관을 비롯한 수많은 단위들의 온실마다에서는 어버이장군님을 천세만세 높이 모셔갈 충정의 마음들이 그대로 자양분이 되여 불멸의 꽃들이 피여났다.

인민무력부와 조선인민군 김성덕소속부대, 인민보안부 등 여러 단위의 일군들과 재배공들은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잘함으로써 수천상의 김정일화들을 활짝 피우고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농업성, 경흥지도국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 앞선 재배방법을 받아들이고 빛조절과 온습도보장을 잘하여 꽃의 생육조건을 충분히 지어주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대외문화련락위원회, 수산성, 국토환경보호성 등 많은 단위의 일군들과 재배공들은 꽃가꾸기에 정성을 기울이는 한편 축전준비사업에도 큰 힘을 넣고있다.

10월의 대축전장을 빛나게 장식할 일념으로 생산적앙양을 일으켜나가고있는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태양의 꽃을 피우는데 온갖 지성을 다 바치고있다.

축전장에 황홀경을 펼칠 위인칭송의 꽃들은 수도의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가정들에서도 만발하고있다.

전국각지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업적을 천만송이로 붉게붉게 피여나는 김정일화와 더불어 길이 빛내여나갈 충정의 한마음으로 불멸의 꽃 전시회준비사업에 온갖 성의를 다하고있다.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안고 불멸의 꽃 김정일화를 정성껏 키워가고있다.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에서— 본사기자 김광혁 찍음

조선인민내무군 지휘성원들

백두산지구혁명전적지 답사

천만군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인민내무군 지휘성원들의 백두산지구혁명전적지답사가 23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였다.

조선인민내무군 지휘성원들은 23일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앞에서 출발모임을 가지였다.

모임에 앞서 그들은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모임에서는 이번 백두산지구혁명전적지답사행군을 통하여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며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체질화하여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보위하는 무쇠방패로 억세게 준비할 행군대원들의 불타는 의지가 표명되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기와 답사행군대기발을 대오앞에 펄펄 휘날리며 력사의 땅 보천보에 도착한 답사행군대원들은 보천보혁명박물관, 보천보전투지휘처, 우편국, 면사무소, 소방회관, 경찰관주재소 등을 돌아보았다.

그들은 총검의 숲을 헤치고 조국땅 보천보에 진출하시여 원쑤격멸의 총성으로 일제의 발굽밑에서 신음하던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조국해방의 서광을 안겨주신 항일의 전설적영웅의 불멸의 업적과 비범한 위인상을 뜨겁게 새겨안았다.

이날 저녁 답사행군대원들은 우등불모임을 가지였다.

밤하늘을 환히 밝히며 삼단같은 불길이 타래쳐오르는 속에 장편서사시 《백두산》이 랑송되고 항일혁명선렬들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담은 혁명가요들이 모임참가자들속에서 우렁차게 울려퍼졌다.

백두의 혈통을 꿋꿋이 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내무군장병들의 충정의 분출인양 전체 답사행군대원들이 부르는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의 노래소리가 백두의 전구에 메아리쳐갔다.

답사행군길에서 보서리샘물터와 중흥등판명제비, 리명수혁명사적지를 돌아본 그들은 백두의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확고히 고수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체득하였다.

청봉, 건창숙영지들을 참관한 답사행군대원들은 항일대전의 나날 투사들이 발휘한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오늘의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갈 결의를 가다듬었다.

그들은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 백두산밀영고향집을 방문하였다.

고향집에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과 사령부귀틀집, 대원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사용하신 박우물과 손수 쓰신 혁명적구호문헌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면서 그들은 절세위인들의 성스러운 력사가 아로새겨진 태양의 성지와 더불어 선군조선은 백두의 혈통으로 세세년년 빛을 뿌릴것이라는것을 확신하였다.

답사행군대원들은 백두산밀영고향집을 떠나 무포숙영지를 거쳐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에 도착하였다.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을 우러르는 답사자들의 가슴가슴은 백두산총대를 억세게 틀어잡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불타는 맹세로 끓어번지였다.

조선인민내무군 지휘성원들은 삼지연대기념비앞에서 맹세모임을 가지였다.

그들은 조선인민내무군이 수령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칼을 날카롭게 벼리여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와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사수하는 오늘의 오중흡7련대가 될것을 엄숙히 맹세하였다.

행군대원들은 답사과정에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와 시랑송발표모임, 혁명가요대렬합창경연, 문답식학습경연을 비롯한 다양한 정치문화사업을 진행하였다.

조선인민내무군 지휘성원들은 답사기간 새해농사차비로 들끓는 농장들에 성의껏 마련한 지원물자들을 넘겨주고 농장원들의 일손을 도와주면서 여러가지 군중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였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제70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9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농근맹중앙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위원들, 중앙과 지방의 농근맹일군들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체104(2015)년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결사관철할데 대하여 토의하였다. 리명길 농근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지금 전체 농근맹일군들과 동맹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승리의 신심드높이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여있다고 말하였다.

모든 농근맹조직들과 일군들이 동맹원들을 뜻깊은 올해를 위대한 승리의 해, 혁명적대경사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며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모든 농근맹조직들을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전투적인 조직으로 튼튼히 꾸려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농근맹사업부문에 주신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끝까지 관철해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농근맹조직들이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우리 혁명의 사상진지를 철통같이 다져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동맹원들이 자기 도와 군, 자기 향토를 자체로 지킬수 있게 전민항전준비를 튼튼히 갖추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농업과학연구부문 농근맹조직들에서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많이 내놓기 위한 된바람을 세차게 일으킬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농촌의 농근맹조직들에서는 물절약형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하기 위한 사회주의증산경쟁운동을 실속있게 진행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전후에 복구건설을 한것처럼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투쟁에로 농근맹원들을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려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농근맹일군들이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을 당앞에 전적으로 책임졌다는 자각을 안고 패배주의, 보신주의, 요령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애국의 호소따라 백두의 혁명정신과 기상으로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 조국해방과 당창건 일흔돐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여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결정서가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앞선 과학기술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자

당정책에 대한 관점문제였다

락랑구역 송남협동농장 일군들의 사업을 놓고

최근년간 락랑구역 송남협동농장에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잘 짓고있다.

논이 부침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는 농장에서는 지난해에도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으며 특히 논벼농사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 비결에 대하여 이 농장 기사장인 김승도동무는 여러가지로 말할수 있다고 하면서 그가운데서도 가장 주되는 요인은 다수확 논벼품종의 배치와 모기르기방법의 개선에 있다고 말하였다.

농사에서는 종자가 기본인것만큼 다수확품종배치가 은을 낸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이로부터 우리가 주목한것은 모기르기방법의 개선문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앞선 영농방법과 기술을 널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농장에서는 여러해전부터 농업과학원 작물재배연구소 실장 함태선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과의 창조적협조밑에 논농사에 속성모기르기방법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이였다.

속성모기르기는 일반랭상모기르기에 비하여 모판면적이 훨씬 줄어들고 모기르는 기간이 짧으면서도 모뜨기가 쉬운 등의 좋은 점을 가지고있다.

농장에서는 농업과학자들과 힘을 합쳐 모판흙준비에 품이 많이 들던 종전의 속성모기르기방법을 모판흙을 따로 준비하지 않으면서도 모소질과 모선률, 질소비료의 리용률을 더욱 높일수 있게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받아들임으로써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영농자재와 로력을 훨씬 절약할수 있는 이 속성모기르기방법의 경제적효과성이 실천적으로 확증되고 이와 관련한 국가과학기술성과가 창조된 곳이 바로 이 농장이다.

그만큼 속성모기르기방법은 이 농장에 있어서 파악이 있고 경험도 풍부할뿐아니라 대동강아래지구에 자리잡고있는 농장의 지리적조건에도 맞는 비교적 안전한 농법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관리위원장 정남철동무를 비롯한 농장의 일군들은 올해농사에서 속성모위주로부터 영양알모와 영양단지모위주로 모기르기방법을 개선할것을 작전하였다.

100가지가운데서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것이 없는 농사일에서, 더우기 한해농사의 운명을 크게 좌우하는 공정의 하나인 모기르기에서 이미 파악이 있는 안전한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바꾼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되여 이런 대담한 농사작전을 세우게 되였는가.

하나는 지난해농사를 통하여 찾은 교훈으로부터였다.

사실 농장에서는 지금까지 물걱정을 모르고 농사를 지어왔다. 그러나 100년래의 왕가물이 든 지난해에는 사정이 달랐다.

중간물말리기를 하느라고 논판의 물을 뺐는데 그후 계속되는 가물현상에 의하여 초래된 물부족으로 전체 논면적의 1/5이나 되는 논에 물을 대지 못했던것이다. 결국 물을 다시 댄 논에서는 벼뿌리활성이 높아져 수확고가 올라갔으나 물을 대지 못한 논에서는 수확고가 정보당 평균 1t이나 낮았다.

농장적인 알곡생산계획은 넘쳐 수행하였지만 물걱정이 없다고 하던 농장에서 물이 모자라 더 낼수 있는 소출을 내지 못한 이 심중한 사실은 일군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유리한 자연지리적조건을 믿고 있을수 있는 불리한 기상기후조건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데 문제가 있었다.

농장에서는 올해에 지난해와 같은 불리한 농업기상조건이 예견되는데 맞게 송남천을 대담하게 막고 자연흐름식물길도 째고 분조마다 우물도 파고 물길정리도 실속있게 하는 등 농사에 필요한 물원천확보사업을 강하게 내밀었다.

그보다 더 힘을 넣은것은 물을 적게 쓰는 영농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이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영양알모와 영양단지모에 의한 모기르기방법이다.

영양알모는 성형모판에서 기르면서 4~7일에 한번씩 물을 댔다가 떼기때문에 적은 물로 튼튼한 벼모를 키울수 있다. 영양단지모는 장냉이영양단지처럼 영양단지모판에 벼씨앗을 심어 밭상태로 자래우고 단지채로 내는 모종류이므로 모기르기에서 많은 물을 절약할수 있다.

현재 농장에서는 전체 논의 절반면적에 영양알모를 받아들일수 있는 수지성형모판을 품들여 마련한것을 비롯하여 물을 적게 쓰는 모기르기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빈틈없는 준비를 갖추고있다.

농장에서 모기르기방법을 개선할 결심을 내리게 된 다른 하나의 요인은 영양알모나 영양단지모를 받아들일수 있는 경험이 일정하게 있는데도 있다.

지난해에 농장에서는 속성모기르기를 위주로 하면서도 농업과학자들과 힘을 합쳐 영양알모와 영양단지모 등 여러 단위들에서 실천적으로 은을 나타내고있는 여러가지 모기르기방법에 대한 시험을 심화시켰다.

영양알모나 영양단지모는 일반랭상모에 비하여 종자소요량이 절반이하로 훨씬 적어 모판면적이 대폭 줄어들뿐아니라 모기르는 기간이 짧으므로 많은 로력과 자재를 절약할수 있어 좋았다. 그러면서도 소출이 높았다.

농장에서 지난해에 어느 한 논벼품종의 작황을 보면 속성모를 낸 논에서보다 영양알모를 낸 논에서는 평당 이삭수가 늘어나고 정보당 수확고가 437kg, 영양단지모를 낸 논에서는 228kg 더 높았다. 시험결과는 농장에서 심은 모든 품종들에서 같은 경향성을 띠고 나타났다.

이로부터 농장에서는 영양알모나 영양단지모를 길러 논에 내는것이 보다 실리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 귀중한 경험은 농장에서 모기르기방법을 대담하게 바꿀수 있게 한 든든한 과학기술적담보로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물절약형농법을 적극 받아들일데 대하여 주신 강령적인 말씀을 받아안은 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지금 모기르기방법을 개선하는 사업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으로 여기고 떨쳐나섰다. 정보당 수확고에서 전국적으로 앞선 농장들을 기어이 따라잡을 목표를 내세우고 야심만만하게 달라붙었다.

모기르기방법의 개선이 이 농장의 올해농사에서 은을 내게 되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그러나 그에 앞서 긍정하게 되는것은 하나의 성과에 만족함이 없이 성과속에서도 교훈과 경험을 찾고 자기 농장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는 새로운 영농방법을 부단히 탐구하면서 농사작전과 지휘를 과학적으로 짜고드는 이곳 일군들의 진취적인 일본새이다.

그 진취적인 일본새밑에는 과학농사문제를 영농실천상문제나 과학기술실무적문제로 보기전에 당정책을 어떻게 접수하고 어떻게 집행하는가 하는 정치적문제로 대한 농장일군들의 투철한 사상관점이 뿌리내리고있다.

락랑구역 송남협동농장에서 이룩되고있는 성과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본사기자 려명희

최우수발명가와 농장작업반장

순천시 동암남새전문협동농장 제4작업반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대의 농사는 과학농사이며 모든 영농작업이 기술작업입니다.》

순천시 동암남새전문협동농장 제4작업반이 지난해농사에서 그야말로 통장훈을 불렀다.

지난 시기의 평균수확량에 비해 거의 2배나 되는 많은 수확을 거둔이 비약적인 발전에 누구나 감탄을 금치 못하고있으며 특별한 묘술이 있을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옳은 생각이다.

한 농장원은 《여기에 시집을 온지 30년이 지났지만 지난해처럼 농사가 잘되기는 처음이다.》라고 말하였다.

이 말을 통해서도 이 작업반의 지난해농사작황을 짐작할수 있다.

우리는 그 비결을 알고싶어 농장원들속에 더 깊이 들어갔다.

리봉운동무는 원래 농장적으로 일 잘하기로 소문이 난 제5작업반 반장이였다.

지난해 그가 제4작업반 반장으로 조동되였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제5작업반이 앞서나가기가 힘들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그만큼 그는 일군이였다.

리봉운동무도 생각이 많았다.

당시로서는 농장적으로 뒤떨어진 상태에 있던 새로 맡은 작업반농사를 개선할 방책이 잘 떠오르지 않았다.

이때 그에게는 가까운 곳에서 카리규소비료를 생산하고있다는 정말이지 귀맛이 당기는 소리가 들려왔다.

한달음에 비료생산현장에 달려간 그는 2014년 최우수발명가인 옥류관 부원 손정삼동무와 무릎을 마주하였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카리규소비료에 대한 과학적인 파악을 하고 돌아온 그날 저녁 그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자면 앞선 과학기술성과들을 대담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당의 뜻이고 과학농사시대인 오늘날 어느 단위에서나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과학기술성과를 제때에 받아들이는데 증산의 돌파구가 있다.

리봉운동무는 손정삼동무와의 긴밀한 련계밑에 카리규소비료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결심을 가지였다.

카리비료가 작물이 자라는데 없어서는 안될 3대요소비료의 하나이라는것은 누구나 알고있는 사실이지만 농사는 한번 지어놓으면 끝난다.

이렇게 볼 때 아직은 파악이 없고 누구도 써본적이 없는 카리규소비료를 선뜻 도입한다는것은 결코 쉽게 결심할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증산의 돌파구를 여는 길은 그 길밖에 없었다.

작업반장과 농장원들은 새로 개발된 카리규소비료를 대담하게 벼와 강냉이농사에 다 도입하였다. 결과 그들자신을 놀라게 하는 흐뭇한 작황이 펼쳐졌다.

작업반에서는 카리규소비료를 논벼와 강냉이에 2차에 걸쳐 주었다.

논벼의 1차비료주기는 모살이가 끝난 다음에 하였으며 2차는 이삭비료로 주었다.

이렇게 하니 지난 시기보다 아지수는 2~3대가 더 많아지고 이삭당 알수는 거의 100알이 많아졌으며 천알무게는 7~8g 늘어났다.

강냉이농사도 벼농사에 결코 짝지지 않았다. 평당 이삭무게가 그 전해에 비해 2배가 되였고 강냉이이삭들은 마지막알까지 총총히 여물어있었다.

결과 논벼는 평균수확량에 비해 거의 2배에 달하였으며 강냉이는 그 전해에 비해 2배를 릉가하였다.

이렇게 제4작업반에서는 카리규소비료를 도입하여 지난해농사에서 사람들을 놀래우는 훌륭한 작황을 마련하였다.

발명은 실천에 도입되여야 은을 낸다.

비록 평범한 농장작업반장이지만 새로운 발명을 신중히 대하고 그것을 자기의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품을 들여 찾아간 그 걸음이 얼마나 큰 실리를 낳게 하였는가.

본사기자 김경철

과학화, 현대화실현에 이바지하게 될 첨단연구성과들

농업부문에 파견된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과 기술의 시대, 정보화시대의 요구에 맞게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농업의 과학화, 현대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합니다.》

농업부문에 파견된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원들이 농업의 과학화, 현대화에 이바지하는 훌륭한 과학연구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이들은 포전전자지도와 위성화상해석기술, 농작물생육모의기술을 비롯한 첨단과학기술을 농업부문에 받아들이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벌려 지난해 처음으로 논벼와 강냉이예상수확고평가를 진행하였다.

새로운 논벼, 강냉이예상수확고평가방법을 종전의 평뜨기에 의한 예상수확고평가방법과 비교해본 결과 그 정확성이 높은 수준이라는것이 확증되였다.

또한 포전전자지도와 위성화상해석기술, 농작물생육모의기술을 비롯한 첨단과학기술을 리용하여 전국적범위에서 포전별, 시기별영농공정집행정형과 농작물의 생육상태, 가물, 큰물 등에 의한 재해실태를 과학적으로 평가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도 열어놓았다.

농업성의 당, 행정책임일군들은 우리 나라 농업의 과학화, 현대화를 실현하는 사업을 더이상 미룰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의 적극적인 수요자가 되여 주동적으로 첨단과학기술의 높은 목표를 제기하면서 이 사업에로 과학자, 기술자들을 불러일으켰다.

내각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농업성의 책임일군들은 과제를 받아안은 과학자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 연구단위들이 창조적지혜와 협조를 강화하여 연구사업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적극 밀어주었으며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성심성의로 풀어주었다.

또한 과학자, 기술자들과 적극 협력하여 전국적범위에서 농작물생육조사를 위한 표준지들과 생육조사지표들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이 사업을 안받침하기 위한 기술행정사업체계도 세워놓음으로써 지역별, 작물별로 수집되는 방대한 조사자료들이 제때에 신속히 종합되여 연구사업에 리용될수 있게 하였다.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원들은 일군들의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일본새에서 큰 힘을 얻고 이미 개발된 포전전자지도 자료기지에 들어있는 전국의 수십만개의 포전들에 대한 속성자료들을 현실적조건에 맞게 수정, 보충하는 방대한 작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포전전자지도와 위성화상을 결합하여 정보처리를 전국적범위에서 종합적으로 할수 있는 농업토지정보체계를 높은 수준에서 개발하였다.

그리고 지난 10여년간의 위성화상자료, 기상자료, 생산통계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역별, 작물별농작물생육모의특성값들을 과학적으로 확정함으로써 생육모의기술을 예상수확고평가에 적용할수 있게 하였다.

이들의 연구성과를 농업부문에 도입해본 결과 그 경제적효과성이 뚜렷이 나타났다.

논벼와 강냉이의 생육조사자료, 위성화상자료 등을 리용하여 과학성이 담보된 예상수확고평가를 진행하는것으로 하여 평뜨기에 동원되던 막대한 로력과 자재, 물자가 절약되고 나라의 살림살이에 지장을 주던 일부 일군들의 낡은 일본새를 근원적으로 없앨수 있게 되였다.

이와 함께 포전전자지도와 포전별영농공정조사자료, 위성화상자료에 기초하여 농사작전과 지휘, 농사결과분석을 포전을 단위로 객관적이면서도 과학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전망이 확고히 열리게 되였다.

위성화상자료를 결합한것으로 하여 농작물의 생육상태, 가물과 큰물 등에 의한 재해상태를 제때에 장악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울수 있는 과학적인 토대가 마련되였다. 포전전자지도에 기초하여 전국적범위에서 작물과 품종배치를 농작물의 생물학적특성에 맞게 과학적으로 할수 있게 되였다.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원들은 이룩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논벼와 강냉이뿐아니라 농작물전반에 대한 예상수확고판정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다.

강철웅

온실농사에서 장훈을 부른 비결

남포시 천리마구역남새온실에서

남포시 천리마구역남새온실이 전국에 소문이 나고있다.

달마산기슭에 자리잡은 10개 호동에 재배면적이 1만㎡인 이곳 온실에서는 한해에 240여t의 남새를 생산하여 강선의 로동계급에게 보내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국도처에 마련해놓은 축산기지와 양어기지, 온실과 버섯생산기지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여야 합니다.》

온실농사는 로동과 기술이 밀집된 농사이다.

반장 전경철, 기술원 박정남동무들은 생산성제고와 기술집약화, 생산물의 질에 목표를 두고 토지자원과 태양열자원을 충분히 리용하여 온실에서의 단위당 생산성을 높이는데 힘을 넣어 좋은 성과들을 거두고있다.

우선 온실을 실지 덕을 볼수 있게 과학적으로 잘 타산하여 건설한것이다. 뭐니뭐니해도 온실농사에서 기본은 제한된 면적에서 생산성을 높이는것이다. 그러자면 겨울철에 온도보장을 잘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한해 생산량은 떨어질수밖에 없다.

구역의 일군들이 특별히 중시하고 품을 넣은것이 바로 온도보장문제였다.

일군들은 태양열복사량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온실뒤벽면의 재료선정과 구조에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자기 지방에 흔한 돌이 태양열을 저축하는 능력이 매우 크다는것을 과학적으로 해명하고 그 돌로 축열벽을 쌓았다.

돌벽에 검은재빛의 외장재도색까지 하여 열흡수률을 높이였다. 그리고 벽면적이 클수록 축열효과가 더 좋아진다는것을 파악하고 온실의 길이를 100m로부터 120m로 늘이도록 하였다.

여기서 잘한것은 축조를 한 돌사이공간을 메우지 않고 그대로 두어 더 많은 태양열을 축적할수 있게 한것이다. 이렇게 하니 같은 면적에서의 태양열리용률이 훨씬 높아져 한겨울에도 크게 덕을 보고있다.

좋은 점은 또한 남새재배면적을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최대한으로 늘인것이다.

두둑의 너비를 약 1.8m로 하여 심는 배추를 심어 이듬해 2월에 수확면적을 최대한 늘이고 걸음길을 적게 하였으며 축열벽에 나무화분들을 3개 층으로 배렬하였다.

여기에서만도 많은 남새를 수확한다고 한다.

현재 이곳에서는 온실을 ㎡가 아니라 ㎥로 리용할 목적밑에 재배면적우에 수경농사를 하기 위한 준비사업도 다그치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여러가지 남새의 생육기일을 잘 타산하여 그루바꿈을 과학적으로 진행하면서 한해에 7~8번 수확을 하고있다.

12월 초순에는 쑥갓, 부루, 통배추나 붉은봄무우는 사이그루로 심었다가 먼저 수확하고 오이는 8월 중순까지 딴다. 그리고 다시 오이모를 8월 하순에 옮기고 사이그루로는 근대를 심는다. 오이를 비롯한 열매작물들의 모는 한달전에 모판에 부어 재배면적의 허실을 없애였다.

온실농사에서 장훈을 부른 묘술은 역시 과학이였다.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온실건설과 온실농사를 철저히 과학적으로 하니 전국적으로 소문난 단위가 될수 있은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웰남특명전권대사 연회 마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웰남사회주의공화국사이의 외교관계설정 65돐에 즈음하여 팜 비엣 홍 주조 웰남사회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29일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리수용외무상과 조선웰남친선협회 위원장인 서호원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위원장 등 관계부문 일군들이 초대되였다.

웰남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팜 비엣 홍 특명전권대사가 연설하였다.

그는 웰남인민의 정의의 위업수행에 물심량면의 지지와 원조를 보내준 조선의 당과 정부, 인민을 웰남인민은 언제나 고맙게 생각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웰남 당과 정부, 인민은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중시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의 깊은 관심속에 앞으로도 친선협조관계가 공동의 념원과 리익에 맞게 계속 발전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형제적조선인민이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관철하며 인민생활향상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다음으로 리수용외무상이 연설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경애하는 호지명주석께서 마련하여주신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는 지난 65년간 공동위업수행의 한길에서 확대발전되여왔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존경하는 농 득 마잉동지의 평양상봉으로 조선과 웰남사이의 관계가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시종일관한 립장이라고 강조하였다. 우리 인민은 웰남인민이 웰남공산당의 령도밑에 당 제11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하고있는 성과들을 자기 일처럼 기쁘게 생각하고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웬 푸 쫑 웰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와 쯔엉 떤 쌍 웰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의 건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이란대통령에게 신임장 봉정

강삼현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26일 하싼 루하니 이란이슬람공화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석상에서 대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하싼 루하니 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전하였다.

그는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의 인사를 전달하였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자신의 따뜻한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대사에게 부탁하였다.

또한 김영남동지에게 인사를 전달해줄것을 부탁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주석은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의 기초를 마련해주시였으며 이란인민들로부터 다함없는 경모를 받으시는 위대한 수령이시다.

존경하는 김정은령도자각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자주적이며 원칙적인 로선과 정책들을 지지한다.

이란은 정치,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두 나라사이의 훌륭한 관계가 계속 확대발전되기를 바란다.

이란정부는 조선에 대한 미국의 압력과 제재, 강권과 내정간섭을 견결히 반대한다.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이 이룩되기를 바란다.

동남아시아나라들을 방문하는 외무성대표단 출발

웰남, 라오스, 캄보쟈, 먀마,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리길성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외무성대표단이 29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비행장에서 외무성 일군들과 주조 웰남, 라오스, 캄보쟈, 인도네시아의 특명전권대사들, 말레이시아대사관 참사가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삶의 가치는 사랑과 헌신에 있다

함주군 상중리 초급농근맹위원장이였던 리상모동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의 삶의 가치는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얼마나 이바지하였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됩니다.》

함주군 상중리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누구나 잊지 못해하며 추억하는 리초급농근맹위원장이였던 리상모동무는 지금 우리 곁에 없다.

지난 1월 4일 불편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아픈 기색을 애써 감추며 농산제4작업반에 나가 저녁무렵까지 농장원들과 함께 거름운반전투를 벌리던 그는 지게끈을 꼭 잡은채 포전머리에 쓰러져 끝내 일어나지 못하였다.

언제나 당의 사상과 숨결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사회주의농촌진지를 지켜 불같이 헌신하던 리상모동무는 이렇게 42살의 한창나이에 동지들의 곁을 떠나갔다.

상중리사람들은 리상모동무에 대하여 눈굽을 적시며 이렇게 이야기하고있다.

《그는 사람은 어떻게 살며 일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행동으로 보여준 참된 일군이였습니다.》

그렇다. 삶의 가치는 얼마나 오래 살고 얼마나 풍족하게 살았는가 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한생을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 평가되는 법이다.

비록 짧은 생이라 하여도 조국과 인민이 기억하고 동지들의 추억속에 남는 생이야말로 값높고 보람있는 삶이다.

불같은 사람, 이것이 리상모동무에 대한 대중의 한결같은 추억이다.

그 마지막날도 약을 먹고 침상에 누웠던 그는 날이 밝자 작업복부터 찾았다.

그러는 남편을 걱정하며 안해 안명애동무가 만류하였다.

《그런 몸으로 어쩌자고… 빨리 병원에 가자요.》

《오늘이 새해 첫 전투를 시작하는 날인데 농근맹위원장인 내가 서야 할 위치는 포전이요.》

이렇게 집을 나섰던 리상모동무였다.

사실 지난해초부터 그는 지속되는 심장아픔으로 때없이 심한 고통을 느끼고있었다.

허나 그는 전혀 내색하지 않았다. 주머니에 약을 넣고 다니면서도 아무 일 없는듯이 농장원들의 앞장에서 그들을 영농전투에로 불러일으키군 하였다.

지난해 모내기전투가 시작될 때 안해가 결정적인 치료대책을 세우자고 안타깝게 권고하였지만 그는 이렇게 흔연히 대답하였었다.

《모내기를 끝낸 다음 보기요.》

그러나 모내기가 끝나면 김매기를 끝낸 다음에 보자고 했고 가을에는 또 낟알털기까지 끝내고 인차 병원에 가겠다고 하면서 농장원들과 한데 어울려 늘 포전을 떠날줄 모르던 리상모동무였다.

그는 달리는 살수 없는 그런 사람이였다.

상중리에서 농장일군을 하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야 한다고, 4남매중 자기만이라도 고향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회주의농촌진지를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14년전 제대되여 돌아온 때부터 맡은 일에 깨끗한 량심과 성실한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쳐왔다. 농장원으로, 작업반 당세포비서로, 리초급농근맹일군으로 맡은 일은 달라졌지만 어렵고 힘든 모퉁이에 어깨를 들이대군 하던 그의 모습은 언제나 한본새였다.

남새제1작업반 당세포비서로 사업할 때였다. 어느날 13정보에 달하는 밭을 갈아엎고 가을남새를 심어야 할 긴급한 일감이 작업반앞에 나섰다.

그때 리상모동무가 발갈이과제를 선뜻 맡아나섰다. 삼복철의 무더위가 시작된무렵이여서 한낮에는 부림소가 힘을 쓰지 못하는것을 고려하여 리상모동무는 농장원들과 새벽 4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4시부터 저녁 8시까지 시간을 짜고들어 계획된 밭갈이를 전부 끝내고야말았다.

그때뿐이 아니였다. 수백장의 방풍나래가 긴급하게 요구될 때에도 그는 자기부터 밤을 새우며 집에서 수십장의 나래를 엮어가지고 달려나와 실천적모범으로 반원들을 불러일으켰다.

지난해 6월부터 리초급농근맹위원장으로 사업하게 된 리상모동무는 리안의 농근맹원들을 적극 발동하여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사적이 깃들어있는 고향땅을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고장으로 더 잘 꾸려가기 위해 뛰고 또 뛰였다.

한개 리의 농근맹사업을 책임진 높은 자각을 안고 리상모동무는 소낙비가 억수로 쏟아질 때에도, 찬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휘몰아칠 때에도 언제나 농장마을을 돌아보고서야 집으로 향하군 하였다.

지난해 12월 중순 어느날에도 리상모동무는 깊은 밤에 자리를 차고 밖으로 나섰다. 세차게 불어치는 바람에 건물이며 직관판, 구호판들이 걱정되여서였다.

그날 밤 그는 소재지마을을 한바퀴 돌아보며 해당한 대책을 세우고서야 집에 들어섰다. 그리고는 안해에게 재촉하였다.

《콩물을 좀 덥혀서 보온병에 담아주오. 이 추운 밤에 밖에서 수고하는 동무들에게 가져다주어야겠소.》

콩물이 담긴 보온병을 들고 또다시 찬바람불어치는 밖으로 헌헌히 나서는 남편을 바라보는 안해의 눈굽은 뜨거워졌다.

늘 가정보다 농장일을 두고 더 걱정하며 마음쓰는 세대주였다.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전투가 벌어질 때에는 모진 아픔을 애써 누르며 종합탈곡기를 타고 벌에 나가 매 작업반포전을 다 돌면서 농장적인 낟알털기를 기한전에 앞당겨 끝내느라 헌신하던 그였다.

농장의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실을 보다 훌륭하게 꾸리는 사업이 제기되였을 때 리상모동무는 그 일을 자기가 솔선 맡아나섰다.

그는 현장에 나와살다싶이 하면서 내외부를 새로 개건보수하고 책상, 의자들을 전부 도색하여 연구실을 위대성교양거점으로 더 잘 꾸리는데 온갖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였다.

농장에 새로 일떠선 수십동의 살림집들과 봉사시설들, 유치원에 새로 건설된 태양열온실, 번듯하게 꾸려진 남새제1작업반의 농업과학기술지식보급실과 온실 등에는 언제나 당정책관철의 기수가 되여 앞채를 메고 헌신한 그의 성실한 노력이 뜨겁게 슴배여있다.

뿐만아니라 리상모동무는 뜨거운 인정미를 지니고 농장원들이 농사일을 성실히 하도록 친혈육처럼 도와주고 이끌어주었다.

어느 한 작업반에 가정사정이 어려운 한 농근맹원이 있었다. 리상모동무는 그의 집에 여러차례 찾아가 식량과 땔감, 아이들의 학용품도 마련해주고 생일상까지 차려주었으며 그가 소관리공으로 일하게 되였을 때에는 밭갈이도 함께 하면서 맡은 일을 잘하도록 이끌어주었다. 그 농장원이 오늘은 실농군으로 소문난것을 비롯하여 리상모동무는 늘 농근맹원들속에 깊이 들어가 사랑과 정을 주면서 그들모두가 당의 농업정책관철의 앞장에 서도록 이끌어주었다.

언제나 동지들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가정보다도 집단과 농장을 먼저 생각하며 어렵고 힘든 모퉁이마다에 어깨를 들이밀군 하던 리상모동무였기에 상중리사람들모두가 그를 더욱 잊지 못해하고있는것이다.

새해 첫아침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한없는 격정속에 받아안고 올해농사를 잘 지어 자랑찬 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자고 흥분된 심정으로 이야기하던 우리 초급농근맹위원장, 농장을 위하여 스스로 무거운 짐을 맡아안고 앞장에서 뛰고 또 뛴 고향땅의 참된 주인이였다고 누구나 한결같이 이야기하고있다.

그렇다. 리상모동무는 오늘도 불같은 열정을 안고 살던 변함없는 그 모습으로, 동지들을 위해 사심없이 바친 그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전진하는 대오의 앞장에서 농장원대중을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부르고있다.

특파기자 박동석

반통일적인 도전은 절대로 허용될수 없다

올해에 들어와 삼천리강토에 태동하던 긴장완화와 북남관계개선의 기운에 또다시 찬서리가 내려지고있다. 이것은 조선반도의 정세가 안정되고 자주통일의 전환적국면이 마련되는것을 달가와하지 않는 내외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도전으로 빚어지는 엄중한 사태로서 절대로 묵과할수 없다.

새해벽두부터 군사분계선가까이에서 그 누구의 《거점점령》을 노린 실탄사격과 혹한기생존극복훈련, 기계화장비기동훈련 등으로 북침전쟁연습의 총포성을 요란하게 울린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은 미국과의 《련합체제》가 있는 한 군사연습은 계속될것이라느니, 대화재개립장과 별도로 《고도의 경계태세》를 유지할것이라느니 하는 망발들을 거침없이 늘어놓으면서 살벌한 전쟁분위기를 고취하고있다. 이런 음산한 분위기를 타고 최전연일대에 도적고양이처럼 기여든 인간쓰레기들은 미국의 《인권재단》깡패들과 함께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는 반공화국삐라를 또다시 살포하는 극악한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은 그 무슨 《표현의 자유》니, 《공식적으로 자제하라고 요청할 의사》가 없다느니 하는 소리들만을 늘어놓으면서 반공화국삐라살포를 공공연히 비호하고 더욱 조장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무모한 군사연습과 체제대결소동을 중지하고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데 대한 우리의 력사적인 제의에 호응해나올 대신 구태의연한 동족대결책동으로 도전해나서는것은 북남관계가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바라는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북과 남이 서로 싸우지 말고 힘을 합쳐 통일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노력에는 세기를 이어오는 민족분렬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이 땅우에 존엄높고 부흥하는 통일강국을 앞당겨 일떠세우려는 애국의 일념과 불같은 진정이 어려있다.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호소에 담긴 력사적의미를 깊이 새겨야 하며 그에 거역해나서는 행위가 가져올 후과에 대해 백번천번 심사숙고해야 한다. 얼마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가 정책국 성명에서 남조선당국의 온당치 못한 태도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립장을 명백히 천명한 취지도 바로 여기에 있다.

동족사이의 불신과 대결의 악순환을 끝장내고 북남관계의 력사를 새롭게 써나가는것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며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북과 남이 시대의 요구와 겨레의 지향에 맞게 관계개선을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야 할 중대한 력사적시기에 상대방을 반대하는 전쟁연습과 체제대결소동에 발광적으로 매달리며 대화와 협력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는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합리화될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외세와 함께 북침전쟁연습에 계속 매달리는것은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대화분위기를 파괴하는 엄중한 도발행위로 된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해마다 대규모의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으면서 그에 대해 그 무슨 《년례적》이니, 《방어적》이니 하는 넉두리로 변명해나서는것은 전쟁광신자, 평화파괴자로서의 저들의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어리석은 술책이다.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키 리졸브》, 《독수리》, 《을지프리덤 가디언》을 비롯한 합동군사연습은 명백히 내외호전광들이 짜놓은 북침핵선제공격각본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것이다. 지난해에 남조선에서 《맞춤형억제전략》에 따라 력대 최대규모로 벌어진 합동군사연습들도 그것을 립증해준다.

미국은 저들의 3대핵전략타격수단들이 조선반도유사시에 대비하여 항시적인 림전태세를 갖추고있다고 내놓고 위협하고있다. 한편 그 누구의 《핵, 미싸일위협》에 대해 요란히 떠들며 그에 대응한다는 구실밑에 남조선에 핵선제타격수단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이고있다. 미국이 고고도요격미싸일 《싸드》를 남조선에 끌어들이려고 획책하고있는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남조선당국도 최근 《국방백서》에 우리를 《주적》으로 쪼아박고 《도발원점은 물론 지원, 지휘세력까지 응징》하겠다고 고아대면서 우리에 대한 적대관념과 도발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다. 이런 형편에서 남조선에서 대화상대방을 겨냥한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이 계속 감행된다면 그것은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더욱 심화시키고 종당에는 핵전쟁의 불집까지 터뜨리게 될것이다.

남조선당국이 미국과 북침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리익을 심히 해치는 용납 못할 반역행위로 된다. 미국은 남조선을 반공화국압살의 전초기지, 대아시아전략실현의 발판으로 계속 틀어쥐려는 타산으로부터 조선반도의 정세가 완화되는것을 절대로 바라지 않는다. 미국이 년초부터 터무니없이 《북의 싸이버공격》설을 내돌리며 반공화국제재강화에 열을 올리는것도 조선반도에서 긴장완화의 싹이 트는것을 방해하기 위한 고의적인 책동이다. 미국은 조선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수법으로 저들의 패권주의적인 전략을 실현하려고 꾀하고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이 미국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면서 상전과 함께 북침합동군사연습을 계속 감행하는것은 우리의 신성한 조국강토에 핵전쟁재난을 몰아오는 어리석은 망동으로 될것이다. 결국 손해를 볼것은 우리 민족밖에 없다. 이런데도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정당화할수 있겠는가.

지금은 전쟁연습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으로 민족의 운명을 위기에서 구원하고 자주통일의 길을 함께 개척해나가야 할 때이다. 이것을 무시하고 북침합동군사연습을 한사코 정당화하며 대화분위기를 파괴하는것을 우리는 추호도 허용할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벌리는 체제대결책동은 북남관계를 극도로 첨예화시키고 전쟁까지 불러오는 무분별한 도발행위이다.

동족의 사상과 제도를 적대시하며 해치기 위한 체제대결책동은 북남관계개선에 백해무익하다. 남조선당국이 인간쓰레기들의 반공화국삐라살포망동을 《표현의 자유》니 뭐니 하는 식으로 계속 묵인하고 조장한다면 북남관계는 언제 가도 개선될수 없다.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악의에 차서 비방중상하면서 동족사이의 대결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삐라살포와 같은 반민족적인 적대행위들은 지체없이 중지되여야 한다. 우리는 민족의 최고존엄과 가장 우월한 주체의 사회주의제도를 감히 헐뜯으며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을 해치려는 특대형도발행위를 추호도 용서치 않는다.

한줌도 못되는 인간쓰레기들의 삐라살포행위로 말미암아 북남관계가 다시금 파국에로 치닫고 온 겨레의 통일념원이 우롱당하는것을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필수적으로 제기되는 반공화국삐라살포의 중지를 외면하고 자기 책임은 줴버린채 그 무슨 《대화여건조성》에 대해 아무리 외워대도 그것은 기만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북남관계개선에 제동을 거는 인간쓰레기들의 삐라살포행위를 그대로 내버려두면서 《통제불가능》이라고 나자빠지는 남조선당국자들의 무능한 처사는 그들이 진실로 북남대화에 관심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게 한다.

속에 칼을 품고서는 신의있는 대화를 할수 없고 북남관계개선의 문도 열수 없다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남조선당국은 손을 맞잡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는 우리의 호소에 진정으로 합세해나서야 한다.

북남관계를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개선하여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밝은 미래를 개척하려는 우리 공화국의 의지와 립장에는 변함이 없다. 우리는 북남관계개선을 진실로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과거를 불문하고 손을 잡을것이지만 겨레의 통일념원을 짓밟는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도전행위는 무자비한 징벌로 다스려나갈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시대착오적인 대결정책에 계속 매달리는것이 민족의 운명을 망치고 제스스로 파멸의 함정에 빠지는 길이라는것을 명심하고 하루속히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제의에 호응해나서야 하며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기 위한 민족사의 흐름에 뛰여들어야 할것이다.

박 철 준

규탄배격받는 삐라살포망동

남조선에서 인간쓰레기들의 반공화국삐라살포망동이 강력한 규탄과 배격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한겨레》, 《경향신문》, 《통일뉴스》 등 언론들은 삐라살포책동을 북남관계를 파탄시키는 망동으로 비난하면서 그 책임을 당국이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삐라살포가 《정부》의 묵인조장으로 또다시 벌어졌다고 하면서 당국이 실지로 대화를 통해 북남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가고 의문을 표시하였다. 다른 한 연구위원은 대화분위기조성이 일정에 오른 시점에서 삐라살포가 강행된것은 집권자에게 북남관계문제에 대한 철학과 전략이 없기때문이라고 하면서 삐라살포를 차단하겠다는 명확한 립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남조선의 한 시민단체성원은 인간쓰레기들이 뻐젓이 삐라를 살포한것은 당국이 그것을 묵인하였기때문이라고 까밝히면서 《정부》는 북남관계를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있지 않다고 비난하였다.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은 《정부》가 계속 삐라살포를 묵인한다면 강력한 반《정부》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단체는 통일부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삐라를 살포한 미국과 이에 합세한 반공화국모략단체의 망동을 규탄하고 당국이 인간쓰레기들의 삐라살포행위에 대해 통제할 수단도 방법도 없는것처럼 발뺌하는것은 북남관계와 민중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겠다는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하였다. 그러면서 삐라살포행위를 못본척 하는 당국의 책임을 반드시 따지겠다고 경고하였다. 이 단체의 대표는 민심의 요구를 거역하고 삐라살포행위를 외면하면서 막지 않는다면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가 련대투쟁에 나서겠다고 언명하였다. 다른 한 시민단체성원은 북남대화의 분위기가 삐라살포강행으로 사라지고있다고 개탄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은 물론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를 비호하는 당국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집권자의 속심은 뻔하다고 하면서 그는 당국이 진정성없는 이중적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는 대전시청앞에서 삐라살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을 규탄하였다. 이 단체성원들은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군사적충돌과 전쟁을 불러오는 삐라살포를 중단하고 즉각 이 땅을 떠나라!》고 웨치면서 북남관계개선을 방해하는 미국의 내정간섭행위를 폭로단죄하였다.

남조선당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정계에서도 울려나오고있다. 새정치민주련합의 한 의원은 삐라살포행위가 계속되도록 아무런 대책도 취하지 않고있는 당국의 태도에 격분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당국이 하루속히 북남관계에 대한 똑똑한 립장을 밝힐것을 요구하였다. 다른 한 의원도 삐라살포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사라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가는 도발적망발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보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남조선외교부 장관이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을 악랄하게 걸고드는 추태를 부린것과 관련하여 29일 이를 규탄하는 보도제1083호를 발표하였다.

보도는 다음과 같다.

얼마전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진행된 세계경제연단 45차 년차총회에 참가한 남조선외교부 장관 윤병세가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을 악랄하게 걸고드는 추태를 부리였다.

그는 《북의 핵무기는 남북관계와 동북아지역평화에 있어 암덩어리》라느니, 《북의 비핵화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평화통일을 이야기할수 없다.》느니 뭐니 하는 악담질을 하였다.

자위적억제력으로 세상이 공인하고 지지하는 우리의 핵보유에 대해 윤병세가 이러쿵저러쿵 수작질해댄것은 조선반도핵문제에 대한 초보적인 상식조차 모르는 얼간망둥이의 가소로운 나발이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조선반도핵문제발생의 근원은 남조선당국이 수많은 미국의 핵무기를 끌어들여 세계최대의 핵무기고로 전변시켰을뿐아니라 끊임없는 북침핵전쟁연습소동으로 우리 공화국을 항시적으로 위협공갈하여온데 있다.

굳이 력사적사실을 다시 상기시킨다면 57년전 바로 오늘이 미국이 남조선에 핵무기를 배비하였다고 공포한 죄악의 날이다.

이때부터 남조선에는 수많은 미국의 북침핵장비들이 물밀듯이 쓸어들고 남조선은 세계최대의 핵화약고, 핵전쟁전초기지로 전변되였다.

뿐만아니라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해마다 북침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면서 조선반도유사시 핵선제사용기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것으로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공갈을 일삼아왔다.

특히 지난해 전 미국방장관 파네타의 회고록을 통해 조선반도유사시 미국의 핵무기사용계획이 세상에 낱낱이 드러난것은 바로 오늘 조선반도에 핵전쟁위험을 몰아오는 장본인이 다름아닌 미국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암덩어리는 바로 미국의 핵이고 남조선당국이 미국과 함께 감행하는 북침핵전쟁책동이다.

이런 핵주범, 도발자들이 도리여 그 누구의 핵에 대해 걸고드는 망발질은 한것은 조선반도핵문제산생의 본질을 오도하고 내외여론을 기만우롱하는 도적이매를 드는 격의 후안무치한 망동으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핵에 대해 말하기 전에 조선반도에 엄중한 핵전쟁위험을 몰아오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의 핵부터 문제시하여야 할것이며 외세와 함께 북침핵전쟁연습을 미친듯이 벌리고있는데 대해 반성하고 사죄하여야 할것이다.

더우기 그 누구의 핵무기 《제거》를 운운하기 전에 남조선에서 미국의 핵무기와 미제침략군을 철수시키고 북침핵전쟁책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윤병세의 망발은 우리의 《핵문제》를 여론화하여 날로 높아가는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위상을 훼손시키고 새해에 들어와 더욱 높아가고있는 북남관계개선분위기를 파탄시켜보려는 불순한 기도에서 출발한것이다.

지금 북남관계는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대결책동으로 하여 대화냐 대결이냐 하는 엄중한 기로에 놓여있다.

바로 이러한 때 북남관계에 찬물을 끼얹고 대화상대방을 심히 자극하는 도발적인 망언을 늘어놓는것은 북남관계를 돌이킬수 없는 파국에로 몰아가려는 흉악한 속심의 발로이다.

윤병세는 앉을 자리, 설자리를 가리는 법부터 배우는것이 좋을것이며 밖에 나가 동족을 헐뜯는 고질적인 악습과 속물적근성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가려는 대결분자들의 도발적망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본사기자

《세월》호를 인양하라!》, 《진실을 규명하라!》

남조선의 참사피해자유가족들과 각계층 군중 경기도 안산에서 전라남도 진도까지의 도보행진에 돌입

남조선에서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회피하는 당국에 대한 항의기운이 고조되고있는 가운데 26일 참사피해자유가족들과 시민단체성원들, 학생, 종교인, 재야인사 등 각계층 군중이 경기도 안산에서부터 전라남도 진도 팽목항까지 530여㎞를 도보로 행진하는 투쟁에 나섰다.

이날 행진시작에 앞서 경기도 안산의 합동분향소앞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4.16가족협의회)가 25일 결성된데 대해 언급하였다.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때로부터 280여일이 지났지만 유가족들은 오늘도 어린 자식들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에 눈물을 흘리고있다고 말하였다.

유가족들이 바라는것은 빠른 시일안에 침몰된 《세월》호를 바다속에서 끌어내여 실종자를 찾는것과 함께 왜 이런 참사가 발생하였고 무엇때문에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았는가를 밝혀내는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지금까지 약속 하나 지킨것이 없는 현 《정부》가 《세월》호를 인양하겠다는 약속도 어기며 진상규명을 방해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정부》는 《세월》호인양이 마지막기회라는것을 명심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당국의 부패정치에 대해 한탄하기보다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결단적인 행동을 전개해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세월》호를 시급히 끌어올려 참사의 진상을 밝힐것을 요구하여 20일간 이어달리기식도보행진을 벌릴것이라고 하면서 이에 국민들이 함께 떨쳐나설것을 그들은 호소하였다.

이어 피해자유가족들과 각계층 군중은 《〈세월〉호를 인양하라!》, 《진실을 규명하라!》고 웨치며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들은 참사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범죄자들을 처벌함으로써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줄 의지를 표명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대결조치의 해제를 요구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경상남도지역의 각계 인사들이 대결조치의 해제를 요구하여 2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통일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5.24조치》를 당장 해제할것을 요구하였다.

민족공동번영의 희망을 담아 진행되던 남북사이 경제협력이 《5.24조치》로 중단되였다고 하면서 이로 하여 엄청난 경제적손실이 나게 되였다고 비난하였다.

남북은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정신대로 서로의 공통점을 찾고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북을 겨냥한 삐라살포는 조선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백해무익한것이라고 하면서 당국이 살포를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실 화 ‖

애 착

취재수첩을 펼쳐든 내앞에 머리가 희끗희끗한 50대의 교육자가 마주앉아있었다. 그는 온천군 원읍고급중학교 교원 최승일이였다. 력사학자나 고고학자도 아닌 평범한 중학교교원이 한두해도 아니고 16년동안 교수사업을 하면서 력사학계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발굴사업을 했다는 사실이 무척 놀라웠다.

《어떻게 되여 발굴사업에 나서게 되였습니까?》

《16년전 력사수업시간에 던진 한 학생의 물음때문이였습니다.》

그는 아득히 흘러간 옛시절의 추억을 더듬었다. …

《선생님, 옛날 우리 선조들이 소금만은 이웃나라들에서 날라다 먹었습니까? 마을에 사는 한 할아버지가 이야기하기를 우리 원읍은 해방전 일제가 염전을 〈건설〉한 이후에야 소금을 생산하였다고 합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어처구니없는 질문이였지만 최승일은 심장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소금고장에서 산다는 자부심을 안고있는 아이들의 순진한 마음에 얼마든지 깃들수 있는 물음이였다. 그러나 최승일이 당시까지 알고있는 지식창고에는 우리 선조들의 소금생산과 관련한 자료가 없었다. 력사학자들에게 정확히 알아보고 대답을 주겠다고 했지만 제자들의 초롱초롱한 눈빛들이 온몸을 찌르는것만 같아 마음이 괴로웠다.

5호담당선전에 나가 로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일제강점전에도 소금이 생산되였다는 말을 들었고 바쁜 교수사업의 여가에 소금생산과 관련한 전설, 야담, 성구, 속담, 고어 등을 하나둘 적어두게 되였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명백한 대답을 줄수 있는 과학적인 자료는 찾을길 없었다.

(아이들의 마음에 력사의 빈자리를 남겨두는것이 과연 교원의 책임이 아니란 말인가?)

나서자란 고향에 대한 자랑으로부터 애국심이 심어진다. 소금고장의 아이들에게 선생님의 참된 목소리로 력사의 진리를, 원읍땅의 자랑을 똑똑히 심어주고싶었다. 그래서 최승일은 힘든 결심을 내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가치있는 력사유적유물들을 더 많이 발굴하여 민족문화유산의 보물고를 풍부히 해나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민족고전들의 옛글때문에 애를 먹었다. 사회과학원의 탁룡범연구사로부터 옛 자료를 먼저 찾고 그에 기초하여 유적유물을 찾아내야 한다는 조언을 들은 즉시 인민대학습당에까지 찾아갔던 최승일이였다. 원읍지대의 자료가 기록되여있는 민족고전인 《삼화지》와 《삼화읍지》는 물론 《삼국사기》, 《성호새설류선》 등 많은 민족고전에서 지리지내용을 원문으로 베껴가지고 다시 원읍로동자구로 내려온 최승일은 번역에 달라붙었다. 전문가들의 방조속에 어려운 옛글을 번역하는 묘리를 얼마간 터득하고 달라붙었건만 사멸된 언어를 산언어로 만드는 번역사업은 최승일의 인내성과 완강성을 침착하게 시험했다. 교수사업으로 바쁜 속에서도 자습으로 한치한치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며 어느덧 7년이 흘러갔다.

리론적연구의 고개를 힘겹게 넘어서자 그 다음에는 발굴실천이라는 아찔한 절벽이 앞을 가로막고있었다. 교단에 나설 때는 말쑥했던 옷차림이 저녁녘에는 온통 흙투성이가 되군 하였다.

드디여 마을 로인들이 이야기하던 그 재뚝에서 두터운 재층을 발견하였다. 소금가마구이터를 쌓았던 유물로 추측되는 돌들과 집자리유적도 찾아냈다. 그러나 10년나마 애써 찾아낸것들이 소금생산유적이 아니라는 소식에 접했을 때 눈앞이 새까맸다. 때식도 잊고 밤낮없이 괴로워하는 남편을 곁에서 보다 못해 안해가 이렇게 지청구를 했다.

《여보, 지금 동네에선 당신이 집토끼를 곁에 두고 산토끼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래요. 교육사업만 착실히 하래도 힘든데 당신이 뭐 력사전문가예요? 그런 일은 력사학자들이 한생을 바쳐서도 성공하기 힘들다고 합디다.》

아이들에게 대답을 주기 위하여, 자기 고장의 력사를 제힘으로 밝혀보고싶어 떠난 길이 이렇게 힘겨울줄은 다는 몰랐었다. 누구도 모르는 심심산골에서 력사유적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한생을 발굴고증에 바치고있는 학자들이라면 이럴 때 무엇이라고 대답할가?

이런 생각을 하고있을 때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김태원교장과 김준남부교장이였다.

《승일선생, 마을에 돌아가는 뛰뛰한 소리에 신경쓰지 마오. 참, 이번에 발굴도 하면서 소금생산과 관련한 새 과목교수안을 쓰는게 어떻소? 난 벌써 선생을 그 적임자로 추천했소.》교장은 서글서글한 어조로 말했다.

최승일은 펄쩍 놀랐다.

《뭐라구요? 이건 정말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 격이군요. 아직도 실패만 거듭하고있는데.》

《중요한건 한번도 실패하지 않는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반드시 일어서는거요. 안그렇소, 부교장선생?》

부교장도 교장의 말에 동감을 표시했다.

《옳습니다. 학생들에게 우리의것을 심어준다는게 어디 쉬운가요. 학교당조직에서는 과외시간에 선생이 하는 일을 돕기로 토의했습니다.》

그들이 더없이 고마왔다.

(학생들이, 온 학교가 나를 지켜보며 도와주고있구나!)

최승일은 다시 힘을 내여 일떠섰다. 안해도 그후 남편이 하는 일을 리해하고 적극 도와나섰다. 그는 발굴을 다그치는 한편 귀성제염소와 광량만제염소 등 소금생산기지들을 돌아보며 사적자료들을 발취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최승일은 무릎을 탁 쳤다. 온천군은 우리 나라에서 소금생산력사가 가장 오랜 군이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 인류의 발생발전은 불과 함께 소금의 발견으로부터 시작되였다는 어버이장군님의 교시를 찾게 된것이였다. 더우기 최승일을 흥분시킨것은 주체36(1947)년 4월 위대한 수령님께서 광량만제염소를 현지지도하실 때 옛날부터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것이 금인데 소금은 금 다음으로 귀중한것이기때문에 소금이라고 했다는 가르치심이였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은 천만번 정당하다. 이 진리를 력사유적유물로 증명하는 길에서 내가 물러선다면 또 누군가가 다시 시작해야 하지 않겠는가. 10년을 바쳐서 안됐다고 순간이나마 주춤거리다니…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법이다.)

최승일은 자신을 채찍질하며 고고학과 관련한 책들을 읽었고 발굴지식도 쌓아갔다. …

력사학계나 고고학계에서는 흔히 《파보아야 안다.》 혹은 《뚜져서 실체가 나와야 안다.》는 말이 통용되고있다. 또다시 수년세월을 바쳐가며 노력한 끝에 최승일은 소금생산유적으로 보아지는 50여개의 장소를 찾아냈다. 이번에는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에 의뢰하였다.

력사전문가나 고고학전문가도 아닌 평범한 중학교교원이 소문없이 시작한 일을 두고 학부의 일군들은 그 보석같은 마음을 지지해주고 애국의 싹을 거목으로 자래워주고싶은 충동을 금할수 없었다. 대학에서는 학부의 제기를 받아들여 력사연구실의 연구사들을 현지에 파견하였다. 그후 력사학부 고고학강좌의 교원, 연구사들도 내려왔고 인류진화발전사연구실의 연구사들도 달려나왔다.

소금물을 담아놓던 시설과 바다로부터 소금물을 끌어들이던 시설, 불을 때서 소금물을 졸이던 시설자리 등은 찾아냈으나 졸여낸 소금물로부터 완전한 소금을 얻던 결정화시설자리를 찾지 못해 몹시 아쉬웠다. 론의가 거듭되였다.

서해안지역은 지질학적으로 볼 때 륭기운동을 한다. 때문에 바다기슭이 아니라 내륙지대쪽에 연구초점을 두어야 한다. 생산력의 발전수준이 현대보다 뒤떨어졌던 당시에는 어떤 방법으로 소금생산을 했겠는가. 원리적인 절차는 같을것이다. …

그들의 학술론쟁은 최승일에게 보다 높이 서서 멀리 보는 눈을 주었다. 상상력으로 세운 가설을 증명하자면 보다 세밀하게 지층을 깎아내며 사소한 징후도 놓치지 말아야 했다. 최승일은 그들이 가르쳐준대로 한치한치 목표에로 접근해갔다. 마침내 결정화시설자리를 찾아냈다. 귀성제염소 고문기사장아바이의 도움도 컸다.

주체102(2013)년에는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에서 수많은 교원, 연구사들과 학생들로 무어진 강력한 발굴력량이 또다시 달려나왔다. 과학적인 판단과 면밀한 조사끝에 이번에는 고구려시기의 유물이 나왔던 자리의 주변을 전면발굴하였다.

성공이였다. 드디여 원읍로동자구에서 고구려시기의 소금생산유적을 찾아냈던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천리혜안의 예지를 립증하는 조선의 첫 소금생산유적을 우리 고장에서 찾아냈습니다. 바다물에 의한 소금생산발상지가 우리 나라이라는것이 증명되였습니다. 또 하나의 국보가 세상에 빛을 뿌리게 되였습니다.)

16년간의 고심어린 노력이 열매를 맺은 그 순간 평양하늘가를 우러르는 최승일의 두볼로는 뜨거운것이 흘러내리고있었다. …

그날의 주인공의 감격을 눈시울뜨겁게 되새겨보며 나는 취재수첩에 이렇게 적어넣었다.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칠 력사교과서에는 자그마한 흠집도 빈자리도 있어서는 안된다. 그 책임은 이 땅에 태를 묻고 사는 모든 공민들에게 있다.》

* *

《응당 해야 할 일을 했을뿐인데 당에서는 저를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에 불러주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의 방조속에 소금생산과 관련한 새 교재초고를 거의 완성했습니다. 고조선시기와 원시시기의 소금생산유적도 머지 않아 발굴될것입니다.》

과외학습지도가 있다며 량해를 구하고 교실로 총총히 걸어가는 최승일의 뒤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저런 훌륭하고 정직한 선생님을 학생들이 얼마나 존경하고 따를것인가 하고 감동깊이 생각하였다.

우리의것에 대한 애착은 결코 작은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조국을 위하여 목숨도 기꺼이 바칠수 있는 애국심의 뿌리이다. 우리 당에서 왜 민족유산보호사업을 전국가적, 전인민적애국사업으로 힘있게 벌려나가야 할 숭고한 사업이라고 그렇듯 중시하는것인가. 심심산골의 력사유적관리원이나 력사발굴고증에 묵묵히 한생을 바치고있는 학자, 교원들의 수고를 당에서는 왜 그토록 높이 평가해주는것인가.

최승일교원처럼, 그를 끝까지 도와주고 그와 함께 묵묵히 발굴사업을 해온 사람들처럼 내 나라의 력사를 지키고 빛내이는 길에 스스로 량심과 한생을 바쳐가고있는 선군시대 애국자들의 모습을 새로운 눈으로 다시 보게 해준 잊을수 없는 취재길이였다.

본사기자 백 성 근

시대착오적인 남조선강점정책을 끝장내야 한다

장장 70년세월이 흐르고있다. 하나의 피줄과 언어, 력사와 문화를 자랑하며 한강토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둘로 갈라진 때로부터 어느덧 일흔번째의 해가 왔다. 그동안 세계는 멀리 전진하고 시대는 크게 달라졌다. 그러나 지구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민족분렬의 쓰라린 비극사는 오늘도 계속되고있다.

우리의 통일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평화노력이 모자라서도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매여달리는 미국때문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고 장장 70년간 민족분렬의 고통을 들씌워온 기본장본인인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무분별한 침략책동에 매달리지 말고 대담하게 정책전환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미군의 남조선강점을 목격한 미국의 한 종군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였다.

《우리들은 해방군이 아니였다. … 우리들은 남조선에 상륙한 첫날부터 조선사람의 적으로 행동하였다.》

미국인들자신이 인정한것처럼 해방후 남조선에 기여든 미군은 해방자가 아니라 강점자였으며 보호자가 아니라 침략자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이 패망한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구실로 우리 나라에 발을 들여놓았지만 그것은 궤변에 지나지 않았다.

미국의 남조선강점은 뿌리깊은 대조선지배정책의 산물이다.

미국은 저들의 세계지배전략실현에서 정치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전략적요충지인 조선반도에 눈독을 들이고 이미 오래전부터 대조선정책을 작성추진시켰다. 특히 조선에 대한 미국의 지배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것은 제2차 세계대전시기였다.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대 초엽에 벌써 《조선독립방안》이라는것을 들고나온 미국은 그후 여러 국제회담들에서 일제를 대신하여 조선에 대한 신탁통치를 실현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였다.

미국이 주장한 신탁통치의 명분은 일제의 군사통치하에 있던 조선민족이 《자치능력》을 가지고있지 못하기때문에 대국들의 공동관리밑에서 그것을 키운 다음 조선에 독립을 부여한다는것이였다. 미국은 원래 신탁통치를 실현하는데서 결정적인것은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는것이며 점령국들가운데서도 저들이 지도적지위를 차지하는것으로 타산하고있었다. 그러나 1945년 8월에 이르러 급변하는 전쟁형세와 조건은 조선반도에 대한 신식민주의적통치를 실현하려는 미국에 매우 불리하게 번져갔다. 이에 위구를 느낀 미국은 전조선을 강점하려던 침략야욕을 일시 누르고 어떻게 하나 조선의 절반땅이라도 차지할 계책을 꾸미였다. 그 모략의 산물이 다름아닌 38°선에 의한 《작전분담선》이였다. 말하자면 패망한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38°선을 계선으로 하여 그 북쪽은 이전 쏘련군이 맡고 그 남쪽은 미군의 작전지역으로 한다는것이였다.

미국의 38°선분렬안은 조선반도의 절반땅이라도 차지해야 앞으로 이를 발판으로 하여 전조선을 강점하고 나아가서 아시아와 전세계 지배목적을 실현할수 있다는 타산밑에 고안된것이였다.

수천년동안 한강토에서 살아오던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고 세기를 이어오며 분렬의 고통을 들씌우고있는 기본장본인이 누구인가 하는것은 력사적사실이 증명해주고있다.

동족사이의 불신과 대결속에서 어부지리를 얻는것은 미국의 체질적인 악습이다.

우리 나라의 분렬에 직접 관여한 트루맨행정부로부터 현 오바마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백악관의 주인은 계속 바뀌고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와 환경이 많이 달라졌지만 유독 변하지 않은것은 미국의 대조선지배정책이다. 오히려 그것은 날을 따라 더욱더 교활하고 포악해지고있다.

미국은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친미괴뢰정부를 조작하는 한편 《점령법위를 전조선으로 확대하여야 한다.》고 떠벌이면서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침공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당시 미국정계에서도 《조선은 아시아에 있어서 미국이 성공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이 달려있는 싸움터이다.》, 《조선의 통일과 독립은 미국의 전반적리익에 있어서 중대한 위협으로 되기때문에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호전적인 주장들이 공공연히 울려나왔다. 이것은 미국이 군사적강점 첫 시기부터 조선의 영구분렬을 꾀하면서 대결의 막뒤에서 저들의 더러운 침략야욕을 실현하려는 흉악한 속심을 폭로하고있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미국에 있어서 조선반도는 언제나 저들의 지배야망과 직결되여있는 전략적교두보이다.

미국의 정책작성자들이 《21세기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기본은 대아시아정책이며 그중에서도 조선반도가 기본초점》이라고 로골적으로 주장하는것은 우연하지 않다. 아시아의 관문인 조선반도를 완전히 장악하지 않고서는 잠재적적수인 중국과 로씨야를 군사전략적으로 제압할수 없고 세계를 정복할수 없다는것이 미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유럽과 중동지역에서 철수시키는 미군무력을 아시아태평양지역 특히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에 집중배비하려 하고있다.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을 무기한 연기하도록 남조선당국을 몰아댄 사실만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의 무기한 연기로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강점이 영구화되고 식민지지배와 예속이 심화되게 되였다. 또한 남조선을 교두보로 한 미국의 침략전쟁책동이 일층 강화되여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핵전쟁위험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였다.

전시작전통제권반환문제는 리승만역도가 미국의 사촉밑에 조선전쟁을 도발하였다가 대참패를 당하게 되자 그를 만회하고 북침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려고 전쟁중인 1950년 7월 미국에 군통수권을 통채로 넘겨준것으로 하여 산생된것이다.

사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기존 합의대로라면 전시작전통제권은 2012년에 남조선에 넘어가게 되여있었다. 이것은 남조선을 영원히 가로타고앉아 제 마음대로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려는 미국에는 치명적인 타격으로 된다. 이로부터 미국은 친미주구들을 사촉하여 《시기상조》니, 《안보불안》이니 뭐니 하며 전시작전통제권반환시기를 2015년까지 연기시키는 추태를 부렸다. 그러던것이 이번에는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을 무기한 연기하는 놀음을 또다시 벌리였던것이다. 그 리면에는 70년간이나 타고앉아있던 군사적요충지를 어떻게 해서나 계속 틀어쥐고 대조선침략정책과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을 실현해보려는 범죄적기도가 깔려있다. 한번문 비게덩이를 절대로 놓지 않는 승냥이의 야수적기질그대로 남조선강점을 영구화하고 우리 민족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으려는 미국의 흉악한 심보는 만천하에 낱낱이 드러났다.

지어 미국은 조선이 통일된 후에도 주변대국들을 견제하기 위하여 남조선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켜야 한다는 얼토당토않은 망발을 늘어놓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패권주의적인 대아시아전략실현을 위해 조선민족을 그 희생물로 삼겠다는 고약한 심보가 아닐수 없다.

조선반도를 둘러싸고 렬강들의 첨예한 갈등과 패권경쟁이 격화되고있는 오늘의 사태는 이 땅의 주인들에게 더이상 민족의 운명을 외세에게 맡겨서는 안된다는것을 피의 교훈으로 새겨주고있다.

민족의 참화를 불러오는 비극적사태를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

미군의 남조선강점은 단순한 무력주둔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민족멸살에도 그 목적을 두고있다. 여기에 바로 미제의 남조선강점정책의 위험성과 범죄성이 있다.

미국이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한 조선의 평화와 통일은 물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해서도 생각할수 없다.

미국의 남조선강점정책은 명백히 평화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 세계흐름에 배치되는 침략과 전쟁정책, 지배주의정책이다.

랭전이 종식되여 국제정세가 변화되고 조선반도를 둘러싼 관계구도가 크게 달라진 오늘에 와서도 미군의 남조선강점이 지속되고있는것은 비극이 아닐수 없다. 지난 시기 미국은 이전 《쏘련의 남하》니, 《남침위협》이니 하면서 남조선주둔 미군이 그의 《억제력》으로서 평화수호에 기여하고있는듯이 광고하여왔다. 랭전일방이였던 이전 쏘련이 해체되고 미국과 우리 주변대국들사이에도 《전략적동반자관계》가 이미 수립되였다. 이런 조건에서 미군이 남조선에 남아있을 명분이 더는 없게 되였다.

남조선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조선반도에서 당장이라도 전쟁이 일어날것처럼 떠들어대는것 역시 그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는 억지주장이다.

해방직후 쏘미쌍방의 합의에 따라 이전 쏘련군대가 1948년에 공화국북반부에서 철수한 후 미국도 《철군》광고를 냈지만 실지로는 미군이 《군사고문단》의 명목으로 남조선땅에 그대로 남아 북침전쟁도발에 앞장섰다는것은 세상에 알려진 사실이다.

반세기가 넘는 오랜 세월 조선반도의 정세를 끊임없이 격화시켜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있는 장본인은 바로 미국이다.

미군의 남조선강점은 유엔총회결의에도 배치된다.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 남조선강점 미군을 철거시키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것을 호소하는 결의가 채택된 때로부터 40년이 된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까지 유엔총회결의를 리행하지 않고있으며 있지도 않는 《남침위협》의 구실밑에 미군의 남조선강점을 정당화하려 하고있다. 미국이 쩍하면 그 누구의 《유엔결의준수》를 떠들면서도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시킬데 대한 유엔총회결의를 리행하지 않고있는것은 그들의 파렴치성만을 그대로 드러내보일뿐이다.

남조선강점 미군을 철수하는것은 미국을 위해서도 현명한 처사이다.

최근 남조선주둔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론조들이 미국정계는 물론 군부내에서까지 여느때없이 강하게 울려나오고있다. 물론 악화되는 재정위기에 따른 궁여지책에 지나지 않지만 이것은 미국인들자체가 남조선강점이 시대착오적이라는것을 인정한것이나 다를바 없다.

줄행랑도 제때에 놓을줄 알아야 한다.

오늘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것은 더는 미룰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과제이다.

미국은 해묵은 남조선강점정책에 매여달릴것이 아니라 현실을 랭정하게 판단하고 대담하게 정책전환을 하여야 한다.

미국이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바란다면 더 늦기 전에 남조선주둔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

전 영 희

승리의 신심드높이 비약하며 전진하는 조선

여러 나라 정당, 단체들 성명 발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지지하여 로씨야자유민주당이 16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세계는 군사적충돌위험 특히 대량파괴무기가 사용될수 있는 위험이 항시적으로 존재하고있는 지역들에서 정세가 근본적으로 완화되리라는 기대를 안고 새해 2015년을 맞이하였다.

그러한 지역의 하나가 바로 단일민족이 분렬의 고통을 겪으며 살고있는 조선반도이다.

최근 조선반도정세는 급격히 첨예화되고있으며 이것은 동북아시아지역의 긴장한 정세를 복잡하게 만들고있다.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있는 책임은 조선에 대한 위협적인 도발행위들을 일삼고있는 미국과 남조선에 있다.

자주적인 나라이며 핵보유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하여 미국과 남조선에 차례질것은 무분별한 전쟁놀음이라는 규탄밖에 없다.

조선의 북과 남이 외세의 간섭이 없이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되면 지역의 긴장상태가 해소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신년사에서 북남관계의 신뢰를 마련하기 위한 실천적인 조치로서 중단된 고위급접촉도 재개할수 있다는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우리는 김정은령도자께서 신년사에서 밝히신 조선반도정세를 완화하기 위한 평화적발기들을 지지하며 새해에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거족적인 운동에서 성과가 이룩되기를 바란다.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의 조국통일부분을 지지하여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와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조, 주체철학연구소조, 선군정치연구소조, 자력갱생연구소조가 1일 련합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승리의 신심드높이 비약하며 전진하는 조선의 기상과 위용을 뚜렷이 과시한 2014년을 보내고 앞날에 대한 확신에 넘쳐 새해 2015년을 맞이하는 이 시각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각하께서 신년사를 하시였다.

김정은각하께서는 비록 정세가 복잡하고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있어도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필생의 념원이며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하고 조선땅우에 존엄높고 부흥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워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북과 남은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시하면서 체제대결을 추구하지 말며 우리민족끼리리념에 따라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통일문제를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순조롭게 풀어나가야 한다는것이 그이의 뜻이다.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2015년 신년사는 조선인민뿐아니라 전세계 진보적인류에게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고있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신년사에서 밝히신 조선통일사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조선인민이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랑찬 승리를 거두리라고 확신하면서 이에 변함없는 련대성을 표시한다.

반공화국모략책동을 당장 중지하라

먄마, 에짚트인사가 규탄

먄마, 에짚트인사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인권》소동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먄마련맹련대성발전당 양곤지역위원회 집행위원 틴 틴모는 23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최근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벌리고있는 반공화국《인권》소동의 모략적진상이 드러나고있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할수 없다.

지난해 유엔총회 제69차회의 3위원회에서 강압통과된 반공화국《인권결의》의 기초로 된 조선인권상황관련 《조사위원회 보고서》가 인간쓰레기들의 허위증언에 의하여 날조된 사기협잡문서라는것이다.

미국은 반공화국책동에 매여달리다 못해 《탈북자》협잡군놈을 국제무대에 내세우면서 극구 추어올리는 구역질나는 추태를 부렸으며 이로 하여 세계면전에서 저들의 《인권》소동의 모략적정체를 드러내놓았다. 더우기 수치스러운것은 유엔이 미국의 이러한 장단에 놀아난것이다.

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온갖 반공화국모략책동을 당장 중지하며 유엔무대를 반공화국소동에 도용하는 놀음을 그만둘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에짚트기자 아흐마드 샤르까위는 21일 인터네트홈페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조선의 현실 특히 인권실태를 심히 외곡하는 소동을 벌리고있다. 그것은 반공화국《인권》소동을 통해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고 나아가서 이 나라의 사회제도를 전복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다.

미국은 1945년 9월 《해방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을 강점하였으며 1950년 6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요람기에 삼키고 인민들을 노예로 만들기 위해 침략전쟁의 불을 질렀다.

그러나 조선인민은 미국을 쳐물리치고 전세계에 영웅조선의 기개를 남김없이 시위하였다.

에드가르 룬구 잠비아대통령으로 취임

잠비아에서 에드가르 룬구가 25일 새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취임식에서 그는 나라의 발전을 적극 추동하며 빈궁을 청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것이라고 다짐하였다.

그는 최근에 있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였다.

미국의 한심한 인권실태 비난

꾸바외무성이 최근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의 비참한 인권실태를 비난하였다.

성명은 흑인들에 대한 미국경찰들의 살인만행이 그치지 않고있는데 대해 지적하면서 이것은 미국땅에서 인종차별이 날로 우심해지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까밝혔다.

성명은 또한 미국에서 녀성근로자들이 남성들에 비해 25%나 적은 임금을 받고 소년로동이 성행하고있으며 관따나모미해군기지감옥에서 비법적으로 감금된 사람들이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다.

‖ 여러 나라에서의 자연재해 ‖

– 모잠비끄의 중부와 북부에서 최근 큰물피해가 계속 확대되고있다.

24일현재 사망자수는 100여명으로 늘어나고 수천ha의 농경지가 못쓰게 되였으며 도로와 다리, 송전탑들을 비롯한 하부구조들이 파괴되였다.

총피해자수는 20만명이상에 달하였다.

잠베지아주가 가장 혹심한 피해를 입었다 한다.

이 나라의 텔레비죤방송은 큰물로 올해 경제장성률이 감소될것으로 예견된다고 전하였다.

– 이란의 반다르 아바스시에서 25일 리히터척도로 5의 지진이 일어났다.

진앙은 시에서 북쪽으로 31㎞ 되는 곳에 있었다 한다.

– 뉴질랜드 사우스섬의 캔터베리에서 26일 산불이 났다.

산불로 500ha의 산림이 불타버리고 짙은 연기에 의해 대기가 심히 오염되였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로씨야대통령 도전에 대응할 립장 표명

로씨야대통령 울라지미르 뿌찐이 최근 군수공업위원회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자기 나라가 군비경쟁에 말려들지 않고 다른 나라들의 도전에 대응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그는 로씨야는 비용이 많이 드는 군비경쟁에 말려들 생각도 없고 그 누구를 위협하지도 않을것이며 모든 분쟁문제를 회담의 방법으로 해결할것을 지향하고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을 계속 견지할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나라들이 주권국가들의 내정에 로골적으로 간섭하고 저들의 군사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고 그는 이러한 정세하에서 나라의 자주권과 령토완정, 민족적리익을 믿음직하고 안정하게 수호하는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고 말하였다.

이를 위해 고도기술에 중점을 돌리고 군사기구전반을 강화하며 나라의 무력을 그 어떤 위협도 물리칠수 있는 현대적이고 기동적이며 잘 장비된 무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

레바논에서

레바논륙군사령관이 최근 군부대시찰과정에 한 발언에서 반테로투쟁을 강화할 립장을 표명하였다. 그는 레바논군은 희생적으로 테로분자들의 침입을 좌절시키고 분쟁과 혼란의 위협으로부터 나라의 단합을 지켜냈다고 말하였다.

테로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는 레바논군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테로의 전파를 막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리베리아에서

리베리아대통령 엘렌 죤슨 써리프가 26일 한 회의에서 나라의 사회경제발전에 힘을 넣을데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최근시기 에볼라비루스의 전파로 심각한 인명피해와 함께 사회경제전반에서 부정적후과가 초래되였으며 특히 농업과 광업, 국경무역분야에서 형편이 악화된데 대해 언급하였다.

정부가 침체를 극복하고 나라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취할것이라고 그는 언명하였다.

베네수엘라에서

베네수엘라에서 최근 나라의 교육발전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취하였다. 그에 따라 정부에서 올해에 20만명의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보장하게 된다 한다.

이란에서

이란에서 지난해 1 633만이상의 조강을 생산하였다. 이것은 그 전해에 비해 5.9% 증가한것이라고 한다. 25일 이 나라 신문 《테헤란 타임스》가 밝혔다.

요르단에서

요르단국왕 아브둘라흐 2세가 26일 한 외교석상에서 테로와 극단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국제적협조를 강화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아랍 및 이슬람교나라들이 테로와의 투쟁에서 협력하는것은 현시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고 말하였다.

테로를 반대하고 이슬람교에 대한 옳은 인식을 주기 위한 사업에서 종교단체들이 주되는 역할을 놀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는 요르단은 중동의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스라엘의 불법무도한 팔레스티나인살림집 파괴행위

범죄

뽀르뚜갈의 리스봉과 그 교외에서 25일 마약범죄집단이 적발되여 많은 량의 마약이 압수되고 7명의 관련범죄자들이 붙잡혔다.

이보다 앞서 23일 이딸리아의 나뽈리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골동품밀수행위들이 드러나 19명의 범죄자들이 체포되였다.

【조선중앙통신】

북남관계개선의 앞길을 막아나선 미국의 죄악(4)

고조된 통일열기를 무참히 짓밟은 막후조종자

1960년대에 우리 나라에서는 자주평화통일의 열기가 그 어느때보다도 고조되였다. 그러나 미제의 악랄하고 음흉한 반통일책동에 의해 우리 민족의 통일적발전은 크게 저지당하였다.

조선전쟁에서 처음으로 참혹한 정치군사적패배를 당한 미제는 이 시기 앙양되는 반제반미투쟁을 가로막고 내리막길에 들어선 저들의 처지를 구원하기 위해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특히 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아시아에 침략의 예봉을 돌리면서 이 지역에서 무너져가는 저들의 식민지지배를 지탱해보려고 전쟁정책을 강화하는 길에 들어섰다.

당시 미국무장관 러스크가 《아시아의 중심문제는 남조선문제이다. 이것은 미국의 아시아정책의 커다란 중심문제로 되고있다.》라고 떠벌인데서도 잘 알수 있다. 이에 따라 미제는 남조선에서 식민지지배의 심각한 위기를 수습하며 남조선을 저들의 침략적군사기지로 더욱 철저히 거머쥐려는 책동을 보다 강화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의 식민지파쑈통치로 말미암아 당시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은 말할수 없는 참혹한 처지에 빠져있었다.

남조선출판물이 개같은 세상으로 변해버린 사회를 저주하면서 《모든 정의와 모든 도덕과 모든 법률이 거꾸로 서고 짓밟혀버린 소름끼치는 세상》이라고 치솟는 분노로 단죄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였다.

착취와 압박이 있는 곳에는 반항이 있고 반항이 있는 곳에서는 혁명이 일어나는 법이다.

남조선인민들의 쌓이고쌓인 원한과 울분은 리승만역도가 벌려놓은 3.15부정선거를 계기로 폭발하였다.

남조선에서는 전인민적인 항쟁이 일어났다. 이것이 바로 력사적인 4.19인민봉기였다.

4.19인민봉기는 수십만 군중이 참가한 대중적인 폭동으로 발전하여 4월말에는 절정에 이르렀다.

항쟁용사들은 리승만파쑈도당의 야수적인 탄압에도 물러섬이 없이 《리승만은 물러가라!》, 《미국은 간섭말라!》 등의 구호를 내걸고 결사전을 벌려 마침내 독재체제를 무너뜨리고야말았다.

4.19인민봉기를 계기로 남조선의 혁명적민주력량의 진출은 급격히 강화되였고 통일운동열기는 세차게 고조되였다.

미제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통일방안이 남조선인민에게 혁명적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면서 그 앞길을 가로막아보려고 미친듯이 책동하였다.

1960년 11월 미국의 UPI통신이 《평양에서 열리고있는 북조선최고인민회의는 남북간의 문화, 통상, 우편 및 기타의 교류를 개시하자고 제의하였다. …〈유엔군사령부〉의 고위소식통들은 남조선〈정부〉가 이에 끌려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유엔군사령부〉가 자기의 영향력을 사용할것이라고 하였다.》라고 한것은 미국이 조선민족의 통일을 가로막기 위하여 얼마나 발광하였는가를 보여주고있다.

그러나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어떠한 책동도 남조선인민들의 거세찬 투쟁을 가로막을수 없었다.

미제의 침략정책을 배격하는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은 자주적평화통일을 요구하여 세찬 파도처럼 남조선 전지역에 확대되여나갔다.

남조선의 청년학생들과 광범한 인민대중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이 땅이 뉘 땅인데 남북형제 못 만나느냐》, 《통일만이 살길이다. 뭉치자 통일의 기발아래로》라는 구호를 들고 1961년 5월중으로 남북학생회담을 열기 위한 대중적투쟁을 벌리였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의 반미기세와 통일열기에 대하여 당시 미국의 통신까지도 《남조선에서는 완전한 환멸로부터 국토통일을 통한 해결의 갈망이 고조되여가고있는것이다.》라고 전하였다.

남조선의 정세발전은 분렬의 장벽을 허물어뜨리고야말 인민대중의 드세찬 통일열풍으로 온 남녘땅을 뜨겁게 달구었다.

미제는 저들의 식민지통치체계가 밑뿌리채 흔들리게 되자 강력한 철권통치로 남조선인민들의 민주화투쟁과 조국통일의 열망을 누르기 위한 군사정변계획을 암암리에 검토준비하였다.

인민대중의 혁명적진출에 의해 식민지지배체계가 위기에 처하게 될 때마다 군부상층의 극단적인 파쑈분자들을 내세워 군사정변을 일으키게 하여 통치위기를 수습하는것은 미제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미제는 제2차 세계대전후 라틴아메리카에서 빈번히 반혁명적군사쿠데타를 조작하고 아시아, 아프리카에서도 여러차례 군사정변을 일으켜 보다 충실한 친미주구를 《정권》의 자리에 앉히군 하였다.

미제가 남조선에서 극악한 친미파쑈분자인 군사깡패 박정희역도로 하여금 감행하게 한 군사정변도 그 수법을 그대로 적용한것이다. 하여 미제는 저들의 때가 묻은 철저한 친미주구인 박정희역도를 내세워 군사정변을 일으켰던것이다.

그것이 바로 력사에 기록된 날강도적인 5.16군사쿠데타이다.

4.19인민봉기를 계기로 고조되였던 남조선인민들의 통일열기를 총칼로 짓뭉개버린 5.16군사쿠데타, 이 범죄적인 군사정변은 미국이 1년전부터 각본을 쓰고 연출까지 맡아수행한 하나의 파쑈광란극이였다.

1959년에 미국회 상원외교위원회 위원장 플브라이트는 어느 한 보고에서 《남조선에서의 정치적위기가 점차 커가고있》으며 《정치적불안정과 위협이 증대되고있는 사실》로부터 《…정당정치가 실패할 경우에 군인정치에 의한 교체를 생각해야 한다.》고 폭언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미중앙정보국 차관이 박정희역도에게 행동지령을 주고 거사자금까지 제공하였다.

당시 미중앙정보국장이였던 죤 알렌 덜레스가 1964년 5월 영국의 BBC방송에 출연하여 《내가 재임중 미중앙정보국의 해외활동에서 가장 성공을 거둔것은 5.16쿠데타였다. 만일 미국이 속수무책으로 방관만 하고있었더라면 민중은 통일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지원하였을지 모른다.》고 지껄임으로써 그 범죄적내막이 폭로되였다.

일본잡지 《에코노미스트》도 《조선전쟁의 주동이 그랬던바와 같이 이번의 군사쿠데타의 주동도 미국이라는것은 명백한 일이다.》라고 썼다.

이 력사적증언자료들은 인민들의 고조된 통일열기를 무참히 짓밟은 범죄적인 군사정변을 막후에서 계획하고 조종한것이 다름아닌 미국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고 장장 70년간 민족분렬의 고통을 들씌워온 철천지원쑤 미제와 결산할 날은 멀지 않았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쌓이고쌓인 분노를 총폭발시켜 이 땅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고야말것이다.

김 철 룡

ㄱ-510168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